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직업전문학교 조리교육생의 기본심리욕구가
진로성숙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조절을 조절효과로-



HANSUNG
UNIVERSITY

2020년

한 성 대 학 교 경 영 대 학 원

호텔관광외식경영학과

외 식 경 영 전 공

박 성 옥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허진

직업전문학교 조리교육생의 기본심리욕구가
진로성숙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조절을 조절효과로—

The Effect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of Career
College Students on Career Maturity and
Behavioral Intention

—By the regulating effect of self regulation—



HANSUNG
UNIVERSITY

2019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경영대학원

호텔관광외식경영학과

외식전공

박성욱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허진

직업전문학교 조리교육생의 기본심리욕구가 진로성숙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조절을 조절효과로—

The Effect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of Career
College Students on Career Maturity and
Behavioral Intention

—By the regulating effect of self regulation—

위 논문을 경영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경영대학원

호텔관광외식경영학과

외식전공

박성옥

박성옥의 경영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19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국 문 초 록

직업전문학교 조리교육생의 기본심리욕구가 진로성숙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조절을 조절효과로-

한 성 대 학 교 경 영 대 학 원
호 텔 관 광 외 식 경 영 학 과
외 식 전 공
박 성 옥

본 연구는 직업훈련기관의 조리교육생들의 기본심리욕구와 관련된 진로성숙, 행동의도의 요인을 관계모형을 설정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조리교육생의 기본심리욕구를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측면 모두 직·간접적으로 진로성숙, 행동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는지 살펴보고, 조리교육생을 기본심리욕구와 진로성숙에 자기조절이 조절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을 제시하였다. 첫째, 직업교육기관, 기본심리욕구, 진로성숙, 행동의도, 자기조절에 대한 기존의 선행문헌들을 기반으로 개념을 정립한다. 둘째, 선행연구를 중심의 기본심리욕구의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진로성숙, 행동의도, 자기조절에 대한 측정요인들을 구체화하고, 설문문항을 개발한다. 셋째, 실증분석을 통한 직업훈련기관의 조리교육생들의 기본심리욕구에 대한 파악과 진로성숙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규명한다. 넷째, 자기조절의 조절효과에 따른 기본심리욕구가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규명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가 향후 직업전문학교의 조리교육생들에게 효

유효적이며 활용적인 진로교육 방향에 필요한 근거제시를 통한 자료를 운영관리자에게 제시한다. 실증분석을 위한 설문은 서울과 경기도지역의 직업훈련기관 조리교육생들을 모집단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자료 수집을 위한 설문조사는 2019년 10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생을 중심으로 320부의 설문 중 설문 회수 결과 305부로 회수율이 95.3%이며 불성실 응답의 설문 24부를 제외한 281부(87.8%)를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조리교육생들의 욕구 만족을 높이고 진로성숙을 통하여 취업률을 높이고 재수강등의 행동의도를 높이기 위하여 전략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하는 것에 의의를 가진다. 첫째, 직업학교에서는 수강종료 후 취업과 관련된 전담직원을 채용하고 있으며 교육생들의 성향이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시점에서 조리교육생의 기본심리욕구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이 진로성숙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연구자의 가설과는 차이를 보이며 유능성과 관계성만이 진로성숙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이 행동의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연구자의 가설과 차이를 보이며 관계성만이 행동의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서로 다른 과거 이력을 가지고 조리교육을 접하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이 진행되다보니 강사나 기관에 의존하는 성향이 강하고 경험에 부족으로 자신감이 결여되어 나타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기관과 강사, 직원 등은 조리교육의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위한 기초지식을 조리교육생들에게 고취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조리교육의 경험을 통한 이해력 향상과 자신감을 부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진로성숙도가 높을수록 행동의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직업전문학교의 교육 후 진로를 결정하고 취업으로 연결되어진다는 신념이 높아질수록 다른 프로그램을 재수강하던지 추천할 수 있으므로 조리교육생들이 희망하고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과정개발에 기관은 노력하여야 함을 내시사하고 있다. 셋째, 자기조절이 기본심리욕구와 진로성숙에 조절역할 관계에 대한 규명을 위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결과 직업전문학교 조리교육생이 인지하는 기본심리욕구 중 자율성, 유능성에는 조절효과가 없다는 연

구 결과를 도출하고 관계성만이 조절역할을 하고 있으나 부의 영향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조리교육을 정부지원을 받아 교육을 받는 직업학교의 조리교육생들은 그동안의 경험과 다른 새로운 기능을 익히면서 그에 따른 두려움과 적성, 앞으로의 진로에 대하여 많이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나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스스로 흥미롭게 열심히 하는 등 본인에게 중요하다고 느끼고 생각하는 부분이 타인과의 공감대형성과 친밀감, 도움을 주고받는 부분이 부의 영향관계를 보이는 것이 조리교육의 전제조건에 따른 것으로 조리학습 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차이로 인하여 어떤 교육생에게는 매우 쉬운 부분이 다른 교육생에게는 매우 어려운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발생하는 경우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관과 강사들이 제시해주는 방향에 대한 확신을 필요로 할 것이며 졸업생들의 우수사례 등과 같은 기회를 접하고 같이 교육 받는 동기들의 관계에서 자신감을 충족시키고 자기신감을 가지고 재수강과 추천, 긍정적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직업전문학교의 운영진들은 조리교육생들에게 현장을 간접경험 할 수 있는 다양한 세미나와 현장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주요어】 조리교육기관, 기본심리욕구, 진로성숙, 행동의도, 자기조절

목 차

I. 서 론	1
1.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1.1.1 문제제기	1
1.1.2 연구목적	4
1.2 연구방법 및 구성	5
II. 이론적 배경	7
2.1 직업전문학교	7
2.1.1 직업전문학교의 개념	7
2.1.2 직업전문학교의 유형	9
2.2 기본심리욕구	11
2.2.1 기본심리욕구의 개념	1
2.2.2 기본심리욕구의 구성요인	3
2.2.3 기본심리욕구의 선행연구	7
2.3 진로성숙	18
2.3.1 진로성숙의 개념	8
2.3.2 진로성숙의 선행연구	2
2.4 행동의도	25
2.4.1 행동의도의 개념	3
2.4.2 행동의도의 선행연구	8
2.5 자기조절	32
2.5.1 자기조절의 개념	3
2.5.2 자기조절의 선행연구	3
III. 연구 설계	38
3.1 연구 모형 및 가설	38
3.1.1 연구모형	38
3.1.2 연구가설	39
3.2 연구 설계와 분석방법	40

3.2.1 변수의 조작적 정의	40
3.2.2 설문지구성	42
3.2.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43
IV. 실증분석	45
4.1 인구통계특성	45
4.2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46
4.2.1 기본심리욕구	46
4.2.2 진로성숙	47
4.2.3 행동의도	48
4.2.4 자기조절	48
4.3 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49
4.3.1 기본심리욕구의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50
4.3.2 진로성숙의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52
4.3.3 행동의도의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53
4.3.4 자기조절의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54
4.4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55
4.5 가설검증	56
4.5.1 기본심리욕구와 진로성숙의 가설검증	66
4.5.2 기본심리욕구와 행동의도의 가설검증	85
4.5.3 진로성숙과 행동의도의 가설검증	95
4.5.4 기본심리욕구와 진로성숙 간의 자기조절의 조절효과검증	106
V. 결 론	65
5.1 연구의 결과 및 시사점	65
5.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후속 연구방향	86
참 고 문 헌	69
부 록	92
ABSTRACT	97

표 목 차

[표 2-1] 학교교육과 직업훈련교육의 방법	8
[표 2-2] 훈련대상자에 따른 훈련과정	01
[표 2-3] 진로성숙의 개념 정리	12
[표 2-4] 행동의도의 개념 정리	72
[표 2-4] 자기조절의 개념 정리	43
[표 3-1] 설문지 구성	24
[표 3-2] 모집단의 규정 및 표본	44
[표 4-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 따른 빈도 분석	5 4
[표 4-2] 기본심리욕구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7 4
[표 4-3] 진로성숙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7 4
[표 4-4] 행동의도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8 4
[표 4-5] 자기조절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9 4
[표 4-6] 기본심리욕구에 대하여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1 5
[표 4-7] 진로성숙도에 대하여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2 5
[표 4-8] 행동의도에 대하여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3 5
[표 4-9] 자기조절에 대하여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4 5
[표 4-10] 상관관계분석	65
[표 4-11] 기본심리욕구와 진로성숙의 관계	7 5
[표 4-12] 기본심리욕구와 행동의도의 관계	8 5
[표 4-13] 진로성숙과 행동의도의 관계	9 5
[표 4-14] 기본심리욕구의 자율성과 진로성숙 간의 자기조절의 조절효과	6
[표 4-15] 기본심리욕구의 유능성과 진로성숙 간의 자기조절의 조절효과	6
[표 4-16] 기본심리욕구의 관계성과 진로성숙 간의 자기조절의 조절효과	6
[표 4-17] 연구가설의 검증결과	46

그 립 목 차

[그림 1-1] 연구의 흐름	6
[그림 3-1] 연구모형	8



I. 서론

1.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1.1 문제제기

현시대는 일정자격과 능력이 갖추어진 전문인들이 각 분야에 걸쳐 활발한 활동을 하는 시대이다.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정보화, 전문화, 사회화, 다원화를 지향하며,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직업전문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적극적인 직업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주효정, 2013). 산업분야에서 직업 전문학교는 직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능, 태도의 개발과 다양하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대처하고 계속적인 맞춤형 연계교육을 통한 높은 기술력 습득과 직업과 관련된 자기발전 성취를 위한 산업기술의 학습과 기능연마를 지원하는 곳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기능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직업전문학교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교육생들은 본인의 진로를 충분히 고려하고 난후 적성에 부합하는 교육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이수경, 2015). 청소년들이 직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많아지고 있으나 정작 본인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또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어떤 대처를 하고 적응을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다(차정원, 2014).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의 진로교육은 교과학습과 따로 분리되어 있으며 진로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과 시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진미석·손유비·김도협, 2012). 앞으로의 진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부의 학생들은 학교 진로교육에 만족을 못하여 특정직업과 연관된 학원에서 수강하여 교육을 받는 방식으로 진로탐색과 대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김광래, 2017). 이에 전반적인 직업관에 대한 성향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직업의식에 관한 문제점 보완을 통하여 올바른 직업진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주효정, 2013). 청소년들의 이러한 고민을 반영하고 그

들의 직무능력배양 및 학위취득이 가능한 직업전문학교는 기능위주의 진로를 탐색하는 교육생들에게 많은 인기가 있다(김광래, 2017). 직업능력은 각각의 분야와 계층에 따라서 특수하며 전문적 능력을 필요로 하므로 정규 교육과정만으로 양성하고, 충족시키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며 정규교육과정에서는 수시로 급변하는 산업체 수요에 따른 교육과정에 능동적인 반영이 어려워 전문양성에는 적합하지 못하며 짧은 기간 안에 많은 인력양성과 공급이 어려우며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재교육 기회를 기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장현옥, 2009). 산업현장에서는 혁신적 조직운영하기 위한 전략의 지속적인 추구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기존에 고수해오던 방식과 조직구성원들의 규정에 따른 역할행동에 의존하다보면 시시각각으로 변화 해가는 환경 속에 생존이 어려운 상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흐름 속에 최근의 기업들은 주어진 상황과 역할에 순응하는 직원보다 당면과제에 능동적 대처가 가능하고 본인에게 주어진 역할 이상을 실행 할 수 있는 자발적, 적극적 인재를 필요로 한다(한봉주, 2010). 이에 직업교육을 주목적으로 하는 직업훈련기관은 교육생의 심리욕구를 파악하여 교육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기본심리욕구는 본인 행동의 지각된 원인과 본인에게 있어 행동의 주체와 조절자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자율성의 욕구와 자신을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지각하고 행동하며 자신감과 효율성을 느끼려 하는 유능성의 욕구, 타인과 서로 관심을 주고받으며 다른 개인과 사회에 함께 소속되며 연결되려는 관계성의 욕구 세 가지로 개인의 심리적인 성장과 발달을 이해하는 필수적 요소로 고려된다(김아영, 2010; Johnston & Finney, 2010; Ryan & Deci, 2002). 인간은 누구나 세 가지의 기본심리욕구를 지니며, 이 욕구들은 개인의 심리성장과 발달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진로결정은 삶의 방향 결정의 중요요소라지만 진로 및 취업문제에 대하여 많은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김미정, 2019). 이런 이유에서 실제 대학에 입학한 후, 무엇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자기탐색의 능동적 수행이 어렵게 된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본인에게 맞는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김미정, 2019). 진로준비는 일시적으로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며 생애주기에 따른 발달과정을 거쳐서 성숙되어가며 이런 진로나 직업에 대한 의식

발달 진로 성숙으로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경험과 직업지식, 직업기대감에 의해 형성된다(이기학, 1997). 직업선택에 따른 방향성설정, 선호직업의 정보획득과 계획수립, 직업선택의 일관성을 가지도록 영향을 준다(이기학, 1997). 각각의 욕구는 인간이 최적의 발달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 어느 하나라도 무시되고 방해될 수 없다고 본다. 개인이 기본심리욕구를 삶의 목표로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할 수 있으며 자기 자신의 욕구충족을 추구하며 이를 제공하는 조건과 상황에 끌리게 된다고 한다. 기본심리욕구가 만족된 만큼 개인의 과제 참여, 숙달, 종합정도가 결정되고, 욕구만족이 방해가 될 경우 동기, 성장, 존엄성, 삶의 질이 떨어지기 쉽다(김아영, 2010; Johnston & Finney, 2010). 자율조절 동기는 개인 자율성의 완전한 보장과 개인행동의 심리욕구 만족을 의미한다. 동기가 더욱 자율적일수록 학습, 수행, 성취 관점에서 지속적, 생산적 노력을 더욱 많이 기울이게 된다(김아영 외, 2018). 사람마다 스스로가 유능한 사람이고자 하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목표달성과 도전을 위한 행동욕구도 강해진다(조용비, 2019). 개인의 추구가치는 특정상황에 따라서 행동결정하며 행동에 따라 작용한다(박선영, 2018). 교육생의 태도를 예측하고 그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은 전략적 마케팅에 있어 가장 핵심과 정이며, 긍정적 태도형성은 연계작용을 통한 지속적 소비, 타인추천 등의 행동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이정수·이상인·이동진, 2018; 노원희·안승호·양령령·송영옥, 2012). Fishbein & Ajzen(1975)은 인간의 특정행위는 수행하려는 행동의도에 의해 결정되며 행위대상에 대한 태도에 의해 행동의도가 결정된다고 하였다. 진로결정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진로준비에 적극적 참여 계획수립과 의사결정 기회가 거의 드문 경우 자신에게 결정권이 주어져도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거나 고민하는 이들이 많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관리능력, 인지적, 동기적인 측면과 관련된 학습전략들을 활용하는 자기조절을 활용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조절은 학업성취 욕구를 촉발시키는 실제적인 촉진자라고 하였다(김미정, 2019).

이에 본 연구는 기본심리욕구와 관련된 진로성숙, 행동의도의 요인을 관계모형을 설정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조리교육생의 기본심리욕구를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측면 모두 직·간접적으로 진로성숙, 행동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는지 살펴보고, 조리교육생을 기본심리욕구와 진로성숙에 자기조절이 조절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1.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직업전문학교의 조리교육생들의 여러 문제 중 진로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극복해보고자 한다. 즉, 인간의 기본심리욕구로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이 진로성숙, 행동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나아가 자기조절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조리교육생들을 대상으로 기능과 물리적 환경에 관한 선행연구(이동숙, 2019; 이경주, 2019; 박원숙; 2018, 김홍진, 2018)과는 차별화를 둔 교육생들의 기본심리욕구, 진로성숙, 행동의도, 자기조절 등의 심리적인 인성을 바탕으로 이론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운영관리자에게 효율적이며 유용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 할 것이라는 기대 하에 다음의 연구목적을 제시하였다.

첫째, 직업교육기관, 기본심리욕구, 진로성숙, 행동의도, 자기조절에 대한 기존의 선행문헌들을 기반으로 개념을 정립한다.

둘째, 선행연구를 중심의 기본심리욕구의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진로성숙, 행동의도, 자기조절에 대한 측정요인들을 구체화하고, 설문문항을 개발한다.

셋째, 실증분석을 통한 직업훈련기관의 조리교육생들의 기본심리욕구에 대한 파악과 진로성숙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규명한다.

넷째, 자기조절의 조절효과에 따른 기본심리욕구가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규명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가 향후 직업전문학교의 조리교육생들에게 효율적이며 활용적인 진로교육 방향에 필요한 근거제시를 통한 자료를 운영관리자에게 제시한다.

1.2 연구방법 및 구성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한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로 구성하였다. 연구 목적달성을 위하여 기존의 선행연구와 문헌을 바탕으로 이론적 체계 정립을 하였으며, 각 설문항목을 그동안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도출하였으며 실증분석은 기존의 문헌을 기반으로 기본심리욕구, 진로성숙, 행동의도, 자기조절에 대한 척도 도출과 이론적 고찰을 통한 도출변수를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 연구하게 될 연구하게 될 모형과 연구가설을 설정을 하였다. 실증분석은 서울 경기도 소재의 직업훈련기관 조리교육생을 대상으로 자료수집 방법은 설문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자료조사는 IBM SPSS Ver. 22.0의 통계패키지 프로그램 사용으로 분석하였으며 연구방법에 따른 연구범위는 총 오장으로 구성되었다. 1장의 서론은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서술로, 연구의 진행방법과 연구구성을 제시하여 연구에 대한 개략적 흐름을 나타내었다. 2장은 이론적 고찰에 해당하며 직업훈련기관, 기본심리욕구, 진로성숙, 행동의도, 자기조절에 대한 개념정리와 하위요인 대한 기존 문헌들과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하여 검토를 실시하였다. 또한 3장은 연구 설계로 상호 간의 영향관계의 개념화에 따른 실증분석을 위하여 연구모형설계와 연구가설 도출을 위한 토대마련을 하였다.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설문구성과 실증조사 설계와 분석방법에 대해 서술하였다. 4장은 실증조사 결과분석으로 표본의 특성과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의 신뢰성, 타당성 검증, 연구가설 검증을 하였다. 마지막 5장 결론에서는 연구결과의 요약, 시사점 및 한계점 제시를 통한 향후연구방향 제시를 하였다. 분석방법으로 코딩자료의 정확성 확인을 위해 IBM SPSS 22.0을 이용하여 집단들 사이에 빈도분석을 하였다. 또한 연구변수들의 기술통계 분석실시와 신뢰성 분석을 위하여 설문항목의 내적일관성과 단일차원분석을 위하여 cronbach's alpha값을 구하고 특정개념의 명확한 반영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수들 사이의 영향관계 확인을 위한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가설검증을 위한 다중회귀분석과 단순회귀 분석을 실시와 조절효과분석을 위한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흐름을 표현한 것이[그림 1-1]

이다.



[그림 1-1]연구 흐름

Ⅱ. 이론적 배경

2.1 직업전문학교

2.1.1 직업전문학교의 개념

직업교육은 근로자 또는 취업자들이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고, 교과내용 및 시설·장비 등이 직업교육훈련기준에 충족하여야 한다(이중윤, 2004). 우리나라 최초의 직업교육은 883년 중국인을 초청해서 공업기능을 교육 한 것이 근대적 직업교육이다. 그 뒤후 1911년 <조선교육령>의 공포로 농업학교·공업학교·간이실업학교가 설치되었으며, 1951년 <교육법> 개정을 통하여 중·고등학교에서 일정 비율 이상 실업교과를 택하도록 명문화하였다. 1963년 <산업교육진흥법> 제정으로 실업교육의 법적지위가 확보되었다. 1981년 12월 <직업훈련기본법>이 제정되어 본격적 근로자 직업훈련실시를 통한 근로자 지위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게 되었다. 1982년에는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의 설립되었고, 1991년에는 <직업훈련기본법> 개정으로 현장훈련의 실시근거가 마련되었다(공요상, 2007). 전문 기능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사회 발달과 기술 집약적인산업 발달로 새로운 기능공이 요구되는 추세에 따라 각 전문대학에서 전문인력 양성과 배출을 하고 있으며, 정규교육기관 외에도 공공기관에서 관장하는 청소년 직업학교, 관인 직업훈련소, 사업체 직업훈련소 등도 많은 인원의 기능사 또는 기능공을 양성하고 있다. 직업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기술자격제도가 있고 직업훈련연구소를 설치하여 직업교육에 관련된 연구를 해오고 있다. 직업전문학교는 국가경제성장과 사회 안정 유지에 필요한 기능 인력개발과, 이해력·판단력·표현력 신장은 물론 사회 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배양이 필요 할 뿐만 아니라 교육과 훈련의 기회가 부족한 이들과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의 능력개발에 도움을 줌으로 이들에 관한 취업

기회 확충으로 그들이 사회 구성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문정훈, 2010). 직업능력은 각 분야, 계층에 따라서 특수하며 전문적 능력을 필요로 하게 되어 정규 교육과정만으로 양성, 충족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정규 교육과정의 경우에 수시로 급변하고 있는 산업체의 수요를 교육과정 속에 능동적으로 반영할 수 없으며 전문적 인력 양성에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짧은 기간 사이에 많은 인력양성과 공급에 어려움이 있으며 재직근로자의 재교육 기회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이는 조리교육 역시 같은 맥락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 조리교육은 학교교육방법과 직업훈련교육방법의 차이가 점차적으로 좁혀지는 성향이 있다. 일반 학교교육방법에서도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내용이 추가되어가고 있다. 또한 최근의 직업교육훈련방법에 기능보다는 인성과 관련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응용능력을 기르고 변화에 대처 가능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체계적 이론과 실기교육의 일치로 직업교육훈련의 궁극적 목표라 할 수 있는 직무수행능력, 즉 기능이나 작업능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1990년대 들어 직업전문학교는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주목을 받으며 급속하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의 흐름에 따라 평생학습을 통한 직업훈련의 역할이 중요하다. [표 2-1] 학교교육과 직업훈련교육의 방법을 구분하여 정리한 표이다.

[표 2-1] 학교교육과 직업훈련교육의 방법

구분	학교교육	직업훈련교육
법률적	교육법적용	직업능력개발 훈련법 적용
성격	광범위한 지식 습득	직무수행에 맞는 기능 습득
목적	건전한 시민 육성	산업 기능인 양성
내용	이론 중심적(70%)	실기 중심적(70~80%)
대상	일반학생	직장인 또는 취업희망자
기간	정기적, 장기적	단기적, 수시적

출처 : 주효정(2013) 중심으로 논자 구성

2.1.2 직업전문학교의 유형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의 범위는 국가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과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과 훈련 교과과정을 위한 시설이 포함되고 그 밖에 사업주나 사업주 단체와 학교 또는 개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 하기 위해 운영하는 시설 가운데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이 있다(김현정, 2010). 지역 내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으로 민간 직업능력개발기관에서 훈련기술과 정보, 자료제공 등의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공공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은 한국 산업인력공단의 산하아래 기능사 를 양성하는 직업전문학교와 공단이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 이 운영하는 기능대학이 있다. 또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서 운영하는 직업전문학교도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이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직 업능력개발을 위해 운영하는 재활직업훈련원과 대한상공회의소 산하의 산업 기사를 양성하는 인력개발원이 있다.

기능대학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고 및 고용보험에 의해 공공 또는 정부위 탁양성훈련을 실시되고 있다(문종운, 2000).

직업전문학교 조리교육생은 크게 실업자 훈련으로 내일배움계좌제과정과 재직자를 위한 근로자 훈련과정 그리고 학점은행제의 학위과정 대상자로 나 눌 수 있다. 직업전문학교는 높은 취업률과 훌륭한 교육시설 및 도시에서의 접근성 등을 장점으로 많은 실습수업 위주의 사회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인재 를 양성하고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직업전문학교는 재정적으로 열악한 곳이 대부분이다. 또한 실습위주의 강의에 중점을 두고 탄탄한 커리큘 럽과 탄력적인 수업 대처로 창의력을 강조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이소영, 2015). [표 2-2] 훈련대상자에 따른 훈련과정을 정리한 표이다.

[표 2-2] 훈련대상자에 따른 훈련과정

대상	구분	훈련대상	훈련과정
실업자 훈련	실업자재취직훈련	65세미만 고용보험에 의한 피보험자였던 실직자	1개월이상 1년이하
	취업유망훈련	65세미만의 신규 미취업자, 고용보험미적용대상자	
	정부위탁훈련	15세이상 65세미만의 실업자, 인문계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자중 상급학교 비진학자	6개월이상
	자활훈련	수급자 중 직업훈련 가능한 자(취업대상자 포함)	1개월이상 1년이하
	고용촉진훈련	65세미만의 고용보험 미적용 실직자로서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군전역(예정)자, 모자복지법 보호대상자, 취업보호대상자, 농림어업인	3개월 이상 1년 이하
	여성가장훈련	여성가장	1개월이상 1년이하
재직자 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자, 구직자, 채용예정자	—
	유급휴가훈련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자	—
	수강장려금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이직예정자 및 50세이상 재직근로자	—

출처 : 주효정(2013)를 중심으로 논자 구성

2.2 기본심리욕구

2.2.1 기본심리욕구의 개념

기본심리욕구(Basic Psychological Needs Theory)이론은 자기결정성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자기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SDT)이란 스스로의 의지로 행동과 사고를 하며 선택과 결정을 하는 개인동기와의 관련이 있다. 1980년대 Deci와 Ryan에 의하여 논의되어진 이론으로, 유기적 통합이론, 인지평가이론, 기본심리욕구이론, 목표내용이론, 인과지향성이론의 5개 소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람들의 행위동기에 대하여 기본 욕구로 설명하는 개념이며 다양한 실험이나 현장연구에서 나타나는 동기부여의 현상 설명을 위하여 개발되었으며 모든 소(小)이론의 핵심에는 기본심리욕구인 유능성(Competence)과 자율성(Autonomy) 및 관계성(Relateness)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고, 사람의 심리적인 안녕감과 풍요함에 필수적이며 상호지지적이다(Deci, & Ryan, 2014). 유능성에 욕구, 자율성에 욕구, 관계성에 욕구는 사람이 생존을 위하여 영양분이 필요하듯 사람이 심리적으로 반드시 충족되기 위하여 필요한 영양소라 할 수 있다(김아영, 2010). 하나의 개인은 스스로의 의지와 흥미에 의하여 활동을 선택하는 자율성에서 숙달할 수 있는 유능성과 중요한 타인으로 부터 지지를 받으며 유대감을 형성하게 될 때의 관계성이 높아져 내재동기가 높아지고 활동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된다. 기본심리욕구이론에 따르면 스스로 주어진 사회 환경 속에서 스스로의 심리적 기본욕구를 충족하기위한 형태로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고 한다. 이에 Deci & Ryan(2002)는 사람은 생리적 욕구와 마찬가지로 생존을 위한 심리적 욕구를 가지고 태어나며 학습과 개인적 발달에 필요 특성의 설명에 중요한 필수조건으로 개인의 심리적 성장 및 발달 그리고 안녕을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욕구라고 기본심리욕구를 정의하고 있다. 심리적 욕구에 따른 에너지는 능동적이며 자발적인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성장하는 성장욕구라 할 수 있다(Reeve, 2014). 이에 심리적으로 기본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사회 환경에 따른 조건에 처하였을 경우, 자기결정성의 높은 내재적 동기가 충족됨을 알 수

있다(이명희·김아영, 2008; Deci & Ryan, 2017).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세 하위요소가 그 욕구에 해당되며, 인간이면 누구나 탄생하는 순간부터 가지게 되는 보편적이고 생득적인 욕구이며,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세 가지 욕구를 의미한다(Deci & Ryan, 2000). 이러한 기본심리욕구가 충분할수록 내재적 동기가 증가되고, 자기결정성이 증가함으로써(Deci & Ryan, 2002), 스스로 행동의 주체가 되어 만족감을 가지며 행동하게 되고, 효율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사회적 공헌도와 삶의 만족 또한 높게 된다(Ryan & Deci, 2000). 기본심리욕구는 다양한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개인이 느끼고 수용하는 기본심리욕구에 관한 지지, 만족, 저지, 비난의 경험 등은 개인의 성장 촉진과 저해를 하는 중요한 영향력을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심리욕구는 개인의 자기 결정성의 변화를 이끄는 요소로서(Deci & Ryan, 1985), 만약 욕구가 충분히 충족되어지면 개인은 스스로 하고자 하는 자기결정성이 높아지게 되고, 이를 통해 바람직하고 만족할만한 내재적 동기의 유발 또는 외재적으로 치우쳤던 동기들의 내재화를 높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자기결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기본심리욕구는 행복(Deci, Ryan, Gagne, Leone, Usunov, & ornazheva, 2001), 직무설계(Van den Broeck, Vansteenkiste, De Witte, & Lens, 2008), 리더십((Lian, Ferris, & Brown, 2012), 조직정치(Rosen, Ferris, Brown, Chen, & Yan, 2014), 주도적 성격(Greguras & Diefendorff, 2010), 개인-환경 적합(Greguras & Diefendorff, 2009)과 같은 다양한 주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과거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집단주의 문화로 인하여 개인의 심리욕구가 집단 또는 더 큰 조직들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하여 과소평가되어지는 경우가 많았다(이한주, 2018). 다양한 문화의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는 현 시대에는 각 개인의 기본적 심리욕구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이한주, 2018). 이는 개인의 내적동기의 향상으로 이어져 교육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그에 따른 주어진 훈련에 몰입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업훈련기관에서 교육생이 인지하는 훈련과정의 기본심리욕구를 주목하였다. 이처럼 교육성과의 향상을 위해 기본심리욕구의 이해가 중요하며 욕구들이 충족될 경우 비로소 자기 결정

성이 높아지게 되어 내재적동기가 강하게 형성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본심리욕구를 선행연구(Deci, & Ryan, 2014; Deci & Ryan, 2002; 이명희·김아영, 2008; Deci & Ryan, 2017; 김아영, 2010)를 바탕으로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하위요인으로 규정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2.2.2 기본심리욕구의 구성요인

2.2.2.1 자율성(Autonomy)

자율성이란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 의사결정의 유연성과 스스로의 가치와 흥미에 따른 행동을 말한다(Deci & Ryan, 2017). 이것은 외부 통제와 강제와는 다른 자발적 결정권을 가지고 자유로운 상태를 축하는 욕구를 뜻한다. 사람들은 어떠한 행동이든 원인이 스스로에게 있으며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행동하는 조절자로, 각자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를 스스로 결정하는 자율성을 원한다(Deci & Ryan, 2000). 자율성은 스스로가 행동 주체로 자발적 행위의 기본욕구개념을 뜻하며(Ryan & Connell, 1989), 행동의 원인을 스스로의 내면에 두고 있다.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자율성이 충분할수록, 자녀의 자율성은 향상되며, 자녀가 지각하게 되는 자율성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에서 긍정적 태도를 보인다(Grolnick & Ryan, 1989; 이수진, 2011).

Hackman & Oldham(1980)는 자율성은 구성원이 자신의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휘할 수 있는 재량의 정도를 뜻한다고 하였다. 직무수행에 있어 자기결정성 동기수준에 영향을 조사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일부 선행연구에서 정보 중심의 피드백 제공, 선택권 보장, 감정 공유 및 관점 수용을 통하여 관리자는 하위직원의 자기결정성을 확대시킬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Baard, Deci, & Ryan, 2004 Deci, Connell, & Ryan, 1989). 이런 결과에 바탕으로 자율성은 교육 수행자에게 계획수립과 수행방식 및 의사결정 등의 측면에서 많은 자유가 존재(Morgeson & Humphrey, 2008)하는지를 인지한다. 또한 업무수행 시 재량권을 확보하는 사람은 업무 전반에 따른 다양한 선택권 및 충분한 통제력을 확보하게 된다. 이를 통해 스스로의 의지에 따른 업

무 처리가 가능하여 자율성 니즈의 충족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이명희·김아영(2008)는 자율성 통제의 경우, 자율성 욕구좌절로 자신감이 떨어지며 불안감이 높아지고 의욕저하로 정서적, 인지적, 부적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자율성은 타인에 의존하거나 관계를 분리하는 개념이 아니며, 자율성과 독립성은 서로 많은 부분에서 상관이 없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하홍길, 2019). 또한 대학생의 경우는 시기적으로 부모와 정서적 독립 및 개별화에 따른 자율성, 정체성의 확립을 도모하는 시기로 대학시기에 긍정의 영향을 미친다(신지영, 2000; Bloss, 1979; Erickson, 1968; 이수진, 2011). 이에 직업학교 교육생들도 스스로 독립적이며 개별화된 자율성이 필요한 시점으로 자율성이 있는 사람이 자신 의지대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내린 결정에 따라 책임을 지고 열심히 살 수 있다(이지현, 2000).

2.2.2.1 유능성(Competence)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능력 있는 존재이기를 희망하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스스로의 능력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적절한 과제 수행으로 스스로 유능함을 지각하고자 하는 것을 유능성의 욕구라고 하며 행위과정을 통해 스스로 유능함을 지각하게 된다(하홍길, 2019). 유능성은 스스로 기술 연마와 역량을 향상시키며, 도전을 추구하고, 스스로의 재능과 능력을 최고로 향상시키기 위한 욕구로, 한 개인이 사회 환경에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자신의 능력, 기술, 재능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경험과 긍정적 피드백과 자율성 지지의 충족을 통해 내적 동기를 촉진시킬 수 있다(Ryan & Deci, 2000). 유능성은 사회 환경과 상호작용 시 효과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함을 스스로 지각하는 신념을 뜻한다(Deci & Ryan, 1985). 즉, 어떤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자체의 의미보다 그 행위에 따른 자신감과 효율성을 의미하며, 유능감 또는 효능감, 능력감으로 정의되며, 이런 유능성의 욕구는 사회 환경과 지속적인 효과로 상호작용의 기회가 주어질 경우 충족된다(김아영, 2010; 이민희·정태연, 2008). 유능성에 대한 욕

구는 기술 및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을 유발하고, 능력발휘를 대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도록 한다(이명희·김아영, 2008).

기존 연구에서는 유능성을 추구하기 위해 자율성 충족이 핵심적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또 다른 연구(김성수·윤미선, 2013; 이민희·정태연, 2008; 황혜원·김봉환, 2013)는 자율성보다는 유능성이 내적동기와 성취에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Deci와 Ryan(2017)의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 피드백과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자각이 유능성 욕구를 만족시키고 스스로 유능성 발휘를 통하여 스스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인지하고 타인에게 인정받으며 유대감을 느끼면 관계성의 내재화 증진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 이라고 하였다. 이는 행동함에 스스로 유능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행동내재화가 어려움을 의미한다(김아영, 2010).

따라서 유능성 욕성을 위해 명확하며 수행 가능한 단계들이 있어야 하며, 너무 쉽거나 또는 너무 어렵지 않은 적절한 수준의 과제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람들은 과제를 어떻게 수행하며, 자신의 행동 결과를 명확하게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하홍길, 2019). 이는 객관적인 척도 보다는 스스로 인지한 것으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개인의 믿음을 의미한다(김은영, 2012; 문태형, 2011). 유능성욕구는 사회적 환경과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할 때 충족된다(김아영,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능성을 선행연구(하홍길, 2019; 김은영, 2012; 문태형, 2011)를 바탕으로 스스로 인지한 것으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개인의 믿음으로 정의 하고자 한다.

2.2.2.1 관계성(Relativeness)

관계성은 사회나 조직 안에서 관심을 주고받으면서 연관성을 느끼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타인에게 배려 받고 있다고 느낄 때 충족되는 욕구다(Ryan & Deci, 2000). 관계성의 욕구는 타인과 안정적 교제나 관계에서의 조화를 이루는 것에서 느끼는 안정성을 의미한다. 관계성 욕구는 타인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거나 사회적인 지위 등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그 관계에서 나타나

는 안정성 그 자체를 지각하는 것을 말한다(하홍길, 2019). 관계성 욕구는 자율성이나 유능성 욕구처럼 직접적 내재적 동기와는 관련 없으나 내재동기 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Ryan & Deci, 2002). 타인으로부터 동기화된 행동들은 스스로의 흥미나 기호와 욕망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니므로 자발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 어렵지만, 동기부여를 주는 타인의 경우 타인에게 동기화된 행동들은 더욱 쉽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박선영, 2018). 이는 관계성 욕구는 내재적 동기를 키우는 데 간접적 영향을 주지만 외적 원인에 따른 내재화 증진에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김아영, 2010; Ryan & Deci, 2002).

관계성 욕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개인과 타인이 지속적 관계를 형성,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Standage, 2003). 개인이 자신의 행동을 통하여 타인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생각 속에 내적동기에 따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타인과 관계성은 외적인 가치를 내적인 것으로 내면화하는 사회적인 맥락 제공으로 중요하다(Grolnick, Deci, & Ryan, 1991). 관계성 충족으로 타인과 친밀하며 진정한 연결의 경험을 하지만, 관계성 좌절은 관계적으로 소외되어 외로운 느낌을 가지게 된다(Ryan, 1995). 이런 관계성의 욕구는 애착(Bowlby, 1969)의 연구에서 중요하게 거론되어지고 있다(이수진, 2011).

Cassidy(2001)의 연구는 초기의 양육자와 안정된 애착관계를 경험한 이들이 교우관계나 대학생활에서 적응에 긍정적 적응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Kenny와 Donaldson(1991)의 연구는 안정된 애착이 낮은 상황 속에서 적응력을 높여준다고 하였다. 관계성에 대한 욕구는 Maslow의 5단계 욕구 중에서 3단계의 타인과 친밀함, 사랑과 사회적 소속에 대한 욕구 등과 관계가 깊으며, 애착과 같은 관계와 정서적 친밀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연구(Bowlby, 1979 Harlow, 1958)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은 인간이 가지는 기본심리욕구로 삶의 안정감과 긍정적이며 효과적 적응을 위하여 충족되어야하는 욕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관계성을 선행연구(하홍길, 2019; 박선영, 2018; 이수진, 2011; 김아영, 2010; Standage, 2003)의 연구를 바탕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개인과 타인이 지속적 관계를 형성, 발전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2.3 기본심리욕구의 선행연구

기본심리욕구 충족 시 개인행동을 내재화시키므로, 기본심리욕구는 개인의 성장에 필수적 전제조건으로 작용한다(Reeve, 2015; Kovjanic et. al., 2012; Gagne & Deci, 2005). 기본심리욕구는 자율성과 유능성, 관계성의 세 가지 욕구충족을 통하여 개인의 심리적인 안정과 성장을 도모한다.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이채리(2017)의 연구는 성인애착 및 진로적응성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와 진로결정 내적 동기의 매개효과 검증을 통하여 애착불안, 애착회피 모두가 기본심리욕구 만족에 유의한 부적 영향관계를 주장하였다.

오상철(2015)의 연구는 부모의 자율성에 대한 지지가 기본심리욕구와 진로결정의 자기효능감이 모두 다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검증하였다. 김은영·성소연·최명구(2014)의 연구는 기본심리욕구가 종업원의 인지적, 감성적, 행동적 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미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Kovjanic, Schuh, Jonas, Quaquebeke & Van Dick(2012)의 연구도 종업원 기본심리욕구의 자율성 욕구가 직무만족에, 유능성 욕구는 직무만족 및 직업효능감에, 관계성 욕구는 리더의 몰입에 긍정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였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기본심리욕구 만족이 커질수록 정서적 조절 동기가 커져서 학교생활 적응이 용이하다는 연구결과(백희숙, 2012; 조혜연, 2012)와 자율성 욕구와 관계성욕구 충족이 높아질수록 심리적인 안녕감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홍승빈, 2012), 기본심리욕구가 충족이 높아지면 우울과 자살생각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윤인효, 2011)를 도출하였다.

한나영·김영조(2009)의 연구는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유능성이 높아질수록 동료를 배려하고자하는 행동을 하게 됨을 확인하였다. 문은식·강승호(2008)의 연구는 교사의 자율성 지지가 유능감 만족을 주는 고등학생에게 심리적인 안녕감이 가져온다는 결과를 주장하였다(조용비, 2019). 이명희·김아영(2008)의 연구는 세 가지의 기본심리욕구 충족은 학교생활만족도, 가정생활만족도, 자기존중감과 우울로 측정된 심리적 안녕감이 예측 가능한 유의한 변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민희(2007)의 연구는 자신의 내적욕구의 만족이 성적 및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어머니, 아버지, 교사의 관

계에서 욕구충족의 느끼는 순서로 고등학생의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였으며, 이 학습 동기는 또다시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문은식(2007)에서는 대학생의 심리적인 안녕감에 부모들의 자율성 지지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한주희·고수일(2002)의 연구는 내재적인 동기가 직무수행노력에 주요 원인임을 주장하였다. Liden, Erdogan, Wayne & Sparrows(2000)의 연구는 자기결정성과 직무만족, 직무수행이 정(+)의 상관관계에 있으며, 유능성이 직무수행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기본심리욕구는 몰입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며, 기본심리욕구가 학습몰입에 정적인 영향관계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많은 선행연구들이 이를 뒷받침 한다(박경숙·오인수, 2016; 김누리·안도희, 2016; 김희정, 2015; 김남희·김종백, 2011). 본 연구는 기본심리욕구를 선행연구(오상철, 2015; Reeve, 2015; Kovjanic et. al., 2012; 한나영·김영조, 2009)를 바탕으로 개인행동을 내재화시키고 개인의 성장에 필수적 전제조건으로 자율성과 유능성, 관계성의 세 가지 욕구충족을 통하여 개인의 심리적인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는 것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2.3 진로성숙

2.3.1 진로성숙의 개념

진로는 개인 삶의 본질, 수준, 내용, 가치 결정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진로선택이 개인의 성장, 발달을 위하여 제일 중요한 과업이라 할 수 있다(김은주·김지현, 2010) 진로성숙이란 Super(1957)의 진로발달이론에서 나온 개념으로 생애발달에 따라 진로발달 단계를 성장기(출생에서 14세), 탐색기(15세에서 24세), 확립기(25세에서 44세), 유지기(45세에서 64세), 쇠퇴기(65세 이후)로 분류하였으며 진로발달은 아동기에서 성인초기에만 발달하는 것이 아니며 생애 전 시기에 걸쳐서 발달하는 것이라 하였다(이현주, 2017).

진로성숙도란 자신의 진로발달단계에 알맞은 과제의 성공적 수행이 가능한 능력수준을 의미한다(이동혁·신윤정·이은설·이효남·홍셋별·황매향, 2017). 또한 진로의사결정에 의한 태도, 진로의사결정에 의한 능력, 진로탐색과 준비행동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Dysinger(1950)에 의하여 최초 제안 되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1)은 청소년들이 자기에 대한 이해와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진로의 선택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발달단계의 연속을 진로성숙이라 하였다. 진로성숙도의 개념적 정의는 학자마다 합의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어려우며(권은숙, 2015; 옥선형, 2016),

직업성숙 또는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인식 등이 혼용되기도 한다(금지현, 2012). Crites(1978)는 진로성숙도를 스스로 올바른 선택 능력과 직업 선택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수준으로 현실적이고 독자적인 선택의 일관성을 가지기 위해 개인이 도달하는 직업적 준비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 Hyot(1977)는 진로성숙도에 대하여 자아와 직업세계의 이해를 잘 통합할 수 있는 준비의 정도로 보았다. Westbrook(1985)은 진로성숙도와 타당성 있는 진로결정의 과정에서 서로의 연관성이 있음을 전제하여 진로결정과 진로행동, 진로중요성에 대한 지식이 진로문제와 직업가치에 대한 지식과 선호하는 직업에 관한 지식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Super, Savickas & Super(1996)는 진로성숙을 어느 하나의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인생전과정을 통하여 변화되며 발전되는 것이라 하였다.

Sahu, Thakur & Agrawal(2017)은 진로발달과업에 대하여 효과적 대응의 준비성과 태도 및 능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념화하였으며 성숙한 진로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도달할 수 있는 인지적이며 정의적, 심리적 요인의 정도라고 하였다. 또한 Allen & Bradley(2015)는 진로성숙도를 진로의 인지완 진로탐색과 진로 의사결정 전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성공적 진로탐색 및 진로선택의 중요요소라고 보았다. 국내연구자에 따르면 백혜영(2018)은 진로성숙을 발달적 개념이며 다음단계의 이행을 위한 준비정도로 정의하였다. 김선경(2017)은 진로성숙도를 진로의 계획적, 체계적인 탐색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한 진로선택과 계획 능력에 관한 발달정도로 정의하였다. 이현주(2017)과 이현미·정제영(2017)는 진로성숙도를 스스로 진로에 관한 자기이해

와 일과 직업의 세계를 이해하며 진로 발달을 위하여 지식습득을 계획하여 나가는 수준으로 정의하였다. 임성애·이은주(2017)는 진로성숙도를 진로계획 수립과 선택 진로의 반경을 이해하고 발달적인 진로과업 성취의 수준으로 정의하였다. 옥선형(2016), 최선미(2016)는 자신의 일과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진로를 계획하여 선택하는 과정에서 동일연령이나 발달단계집단에서 개인이 차지하게 되는 발달과업의 수행도로 진로성숙도를 정의하였다. 박지현(2016)은 동일한 연령층에 나타나는 진로선택과 진로계획에서 인지적이며 정의적인 준비정도로 진로성숙도를 정의하였다.

권은숙(2015)은 진로성숙도를 진로선택을 위한 의사결정 시 개인의 능력과 현실을 반영하여 현명한 진로선택이 가능한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진로와 취업 선택시점에 자신의 내면과 외부환경에 대하여 이해하고 분석하여 합리적인 자기 주도적 행동 및 태도로 스스로에게 알맞은 진로와 취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정도를 진로성숙도로 정의하였다. 강정임(2013)은 진로성숙을 전 인생에 걸쳐서 자신과 일에 관한 이해와 진로에 관한 분명한 확신과 스스로 주체가 되어 진로를 계획하며 준비하고 선택하여 결정하는 태도로 정의하였다.

권은경(2013)은 진로성숙도를 진로계획과 진로선택을 통합하여 조정하는 연속적 발달단계로 보았으며, 이유리·김남중(2013)은 진로성숙도를 진로에 관한 발달과업에 따른 개인수준으로 진로의 선택과정에서 동일 연령층의 학생과 비교 시 나타나는 상대적 자기이해와 직업세계의 이해와 직업선택능력으로 정의하였다. 류형선·이명임(2013)은 진로성숙도를 진로 결정 시 스스로를 이해하고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와 현실적으로 독립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발달의 정도로 정의하였다. 또한, 김종운·김말선(2012)은 진로성숙도는 진로를 결정하기 이전에 일의 가치와 자신의 적성 및 능력에 대한 이해증진이 올바른 진로선택 및 결정을 위한 개인의 성숙수준을 뜻한다고 하였다.

신승원(2012)은 객관적인 정확한 판단 능력에 의한 진로준비와 현명한 결정능력의 정도를 진로성숙도로 정의하였다. 임현정·김난옥(2019)는 진로성숙도를 자신과 직업에 관한 이해의 바탕이 되어 자신의 진로계획과 실천정도로 보았다. 김서영·백지숙(2009)은 개인의 능력, 적성, 가치관, 신체조건, 환경적

조건, 흥미 등을 이해하고 일, 직업관, 직업윤리, 직업조건 등 총체적인 개념이라고 하였다.

[표 2-3] 진로성숙의 개념 정리

연구자	진로성숙 개념
백혜영(2018)	발달적 개념이며 다음단계의 이행을 위한 준비정도
이현주(2017)	스스로 진로에 관한 자기이해와 일과 직업의 세계를 이해하며 진로 발달을 위하여 지식습득을 계획하여 나가는 수준
이현미·정제영(2017)	자아와 직업세계의 이해로 자신의 진로발달을 위하여 지식을 습득하며 계획하여 나가는 수준
임성애·이은주(2017)	진로계획수립과 선택 진로의 반경을 이해하고 발달적인 진로 과업 성취의 수준
옥선형(2016)	자신의 일과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진로를 계획하여 선택하는 과정에서 동일연령이나 발달단계집단에서 개인이 차지하게 되는 발달과업의 수행정도
박지현(2016)	동일한 연령층에 나타나는 진로선택과 진로계획에서 인지적이며 정의적인 준비정도
권은숙(2015)	진로선택을 위한 의사결정 시 개인의 능력과 현실을 반영하여 현명한 진로선택이 가능한 능력
이종원(2014)	진로와 취업 선택시점에 자신의 내면과 외부환경에 대하여 이해하고 분석하여 합리적인 자기 주도적 행동 및 태도로 스스로에게 알맞는 진로 와 취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정도
강정임(2013)	전 인생에 걸쳐서 자신과 일에 관한 이해와 진로에 관한 분명한 확신과 스스로 주체가 되어 진로를 계획하며 준비하고 선택하여 결정하는 태도
권은경(2013)	진로계획과 진로선택을 통합하여 조정하는 연속적 발달단계
이유리·김남중	진로에 관한 발달과업에 따른 개인수준으로 진로의 선택과정

(2013)	에서 동일 연령층의 학생과 비교 시 나타나는 상대적 자기이해와 직업세계의 이해와 직업선택능력
류형선·이명임 (2013)	진로 결정 시 스스로를 이해하고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와 현실적으로 독립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발달의 정도
김종운·김말선 (2012)	진로를 결정하기 이전에 일의 가치와 자신의 적성 및 능력에 대한 이해증진이 올바른 진로선택 및 결정을 위한 개인의 성숙수준
신승원(2012)	객관적인 정확한 판단 능력에 의한 진로준비와 현명한 결정능력의 정도
임현정·김난옥 (2019)	자신과 직업에 관한 이해의 바탕이 되어 자신의 진로계획과 실천정도
김서영·백지숙 (2009)	개인의 능력, 적성, 가치관, 신체조건, 환경적 조건, 흥미 등을 이해하고 일, 직업관, 직업윤리, 직업조건 등 총체적인 개념
Sahu, Thakur & Agrawal(2017)	진로발달과업에 대하여 효과적 대응의 준비성과 태도 및 능력을 포함
Allen & Bradley(2015)	진로의 인지완 진로탐색과 진로 의사결정 전부를 포함
Super, Savickas & Super(1996)	어느 하나의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인생 전과정을 통하여 변화되며 발전되는 것

출처 :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논자 구성

2.3.2 진로성숙의 선행연구

높은 진로성숙도를 가진 개인은 스스로의 진로를 올바르게 설정하며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강승희, 2010; 김봉환·황매향·선헌연·이동혁·임은미·김계현, 2013). 주희진·조규관(2017)의 연구는 대학생의 완벽주의성향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완벽주의적성향의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적극적 수업참여 및 진로교육의 경

험 횟수가 진로성숙도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진로성숙이 높은 학생일수록 대학에서 진로와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에 대한 필요성이 높음을 주장하였다(김미림·유혜림·항은희·김선용, 2019; 임현정·김난옥, 2019).

구남옥·조명근·김현철(2016)의 연구는 여학생이 시간경과에 따른 진로성숙도가 높아지는 반면 남학생집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간경과에 따른 성차를 검증하였다. 정주원(2016)의 연구는 진로성숙도의 다섯 개의 하위요인을 진로계획성, 직업태도, 자기이해, 진로탐색, 진로독립성을 태도적인 차원과 능력적인 차원으로 구분하였으며 능력적인 차원 중 자기이해는 자신의 능력과 성격 등이 진로를 선택 경우 고려하게 되며 개인특성에 관한 이해에 따른 진로탐색은 진로결정을 위하여 정보수집과 진로의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노력의 정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한 박지현(2016)의 연구는 계획성과 독립성, 자신에 대한 지식, 일에 대한 태도, 진로행동 등의 다섯 개의 척도를 이용하여 연구하였다.

소용준·박준성(2016)의 연구는 최근 청년실업률과 함께 사회적 이슈가 되는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진로성숙도 사이에 부적 상관이 나타나 취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는 낮음을 주장하였다. 장세영·이미지·이재호·조영희·김은삼·김경선·김동일(2015)의 연구는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을 진로태도와 진로능력, 진로행동 등으로 구분하여 진로태도에 일에 대한 태도와 독립성, 계획성 등이, 진로능력에 자기이해와 직업지식, 자립성, 직장적응능력 등이, 진로행동에 진로탐색과 진로준비행동을 포함하였다.

권은숙(2015)은 진로성숙도를 계획성, 결정성, 확고성, 자립성, 현실성 등으로 구분하였다. 광미정·김태동·김형모(2014)의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의 하위요인인 계획성, 타협성, 결정성, 성향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이 검증하였다. 이송이(2014)의 연구는 대학생들의 진로성숙도를 참여도, 결정성, 독립성 성향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맹희주(2014)의 연구는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의 진로성숙도를 비교한 연구에서 진로성숙도를 태도, 행동범주, 능력으로 구분하였으며, 태도범주에 독립성과 일에 대한 태도 계획성이 능력

범주에 자기이해와 정보 활용 및 진로결정능력과 직업에 대한지식이, 행동범주에 진로탐색행동과 진로준비행동을 하위요인에 포함하였다.

조명희·이혜연·이현우, 2013)의 연구는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은 학업에 몰입하는 과정에 진로성숙도의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진로발달 결과는 학업성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학업성취도 향상은 진로성숙도에 긍정적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한예정·이종호(2013)의 연구는 전공만족도가 진로성숙도를 높이는 중요변수임을 검증하고 학생들이 가져야 할 바른 사회적 인식과 적극적 관심, 전공과 직업에 관한 가치관의 형성에 중요함을 주장하고 대학생들의 진로성숙도향상의 시사점을 제공하였다(김종운·김말선, 2012; 한예정·이종호, 2013). 김소영(2012)의 연구는 자기조절 학습, 자기주도의 학습태도, 진로발달은 학습동기는 자기주도 학습태도와 유의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 자기주도적인 학습태도나 학업동기가 높은 학생 일수록 진로성숙도가 높다는 결과를 주장하고 있다.

박재은·이정애·이지연·정익중(2011)의 연구는 빈곤집단과 비 빈곤집단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진로성숙도에 대한 비교연구에서 빈곤집단의 청소년 진로성숙도가 비 빈곤집단의 청소년 진로성숙도보다 더 낮게 나타났으며 비 빈곤집단의 청소년 경우에 부모와 애착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급격한 증가를 보이는 반면 빈곤집단의 청소년 경우 부모와의 애착수준이 높아도 진로성숙도 증가수준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민정(2011)의 연구는 진로선택을 위한 진로성숙도를 개인역량 및 미래진로 결정의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이라 할 경우, 진로성숙 관한 변인이 매우 다양하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전반적인 희망 교육수준이 높아질 뿐 아니라 미래 직업결정의 경향이 높아지며 진로성숙도도 역시 꾸준히 성장한다고 하였다. 직업가치와 관련하여 대학생들이 흥미, 전문성, 보상 등과 같은 내재적인 직업가치에 대하여 높은 인식을 가질수록 진로성숙 수준은 높게 나타났다(박소희, 2011; 박신영·김종임, 2017).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개인특성과 관련된 자아개념과 자아존중, 자기효능, 자아정체, 자기학습주도능력, 진로결정, 창의적 인성, 정서적 지능,

취업스트레스, 직업가치, 대인관계능력 등의 여러 요인들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는 개인성장 및 발달과정에 진로성숙도가 개인특성과 관련되어 다양한 변인들에 영향을 받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직업학교의 조리교육생들의 진로성숙도를 높이기 위해 선행연구(김미림·유혜림·함은희·김선용, 2019; 임현정·김난옥, 2019; 박신영·김종임, 2017; 정주원, 2016; 맹희주, 2014; 박소희, 2011)를 바탕으로 직업가치와 내실 있는 진로교육과 상담의 필요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2.4 행동의도

2.4.1 행동의도의 개념

행동의도(behavioral intentions)란 고객이 가지는 미래행동에 관한 의지로 마케팅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변수들은 충성도와 구전 또는 재구매 의도 등이다. Ajzen & Fishbein(1980)는 이성적인 행위이론에서 행동의도는 실제행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한 후 만족 또는 불만족을 경험하는 소비자는 긍정적 행동 또는 부정적 행동으로 반응을 보이게 되며, 사람의 의도예측이 대부분의 개인적 행동을 주장하고 있다(Engel, Blackwell & Miniard, 1995).

행동의도를 특정의 미래 행동을 보이게자하는 개인 의지와 신념으로, 일정 목적 달성을 위한 실행계획이라 주장하고, 개인의 미래행동 의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최연희·이희수, 2013; Zeithaml, 2000). 이는 행위자가 주변 사람에게 추천 또는 그 제품과 서비스를 다시 구매하는 등의 미래 소비자가 취하는 행동 가능성이고, 소비자의 지각감정 또는 내적반응과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행동을 계획하고 수정하는 의지와 신념이라고 하였다(Schiffman & Kanuk, 2007).

현시대는 삶의 질에 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물질적 소비를 넘어서 경험적인 소비가치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백경미, 2013). 가치개념으로는 개인의 자각을 기반으로 한 지각가치와 개인경험으로 경험적

가치를 구분할 수 있으며,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인간 삶과 행동양식 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황동필, 2014). 박영진(2013)은 행동의도에 대하여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행동과 평가에 관련되어진 감정반응을 바탕으로 하여 구매의도 또는 재방문의도 같은 미래행동 계획의 의지와 신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주신옥(2016)은 항공권의 구매플랫폼 시스템품질과 고객만족, 행동의도 연구에서 행동의도가 항공권의 구매플랫폼이 편리함, 유용함으로 다시 재이용하고 싶은 의도라고 정의하였다.

배우암·김홍범(2015)은 어떤 제품을 구입함에 있어 특정 미래지향적 행동을 하려는 의지력의 표시로 제품에 관한 신념과 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주윤황·조희영(2015)은 연구에서 일정기간 동안에 이용자들이 활용한 실질가치의 추구를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지훈·구동모·이미정·임성혁(2011)은 행동의도를 제품과 서비스에 관한 평가와 소비행동 등과 관련 있는 감정반응을 바탕으로 하여 구매의도, 재방문의도, 추천의도 등과 같은 미래행동의 계획과 변경의지나 신념으로 정의하였다.

조태영·서태양(2009)은 참여자 만족에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고객 상품과 서비스 구매, 사용 또는 평가과정에서 경험하는 호의적 감정 또는 비호의적 감정과 태도를 행동의도라고 하였으며 여러 가지 욕구가 충족되는 정도의 전체적 만족측정과 후속태도로 행동의도의 변수인 추천의도와 재방문의 관계를 관광객 만족으로 연구하였다. 최연희·이희수(2013)는 소비자들에 대한 태도 형성 후 특정 미래행동으로 나타내는 의지 및 신념으로 행동의도를 정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선행연구(박영진, 2013; 배우암·김홍범, 2015; 최연희·이희수, 2013; 이지훈·구동모·이미정·임성혁, 2011; Zeithaml, 2000)들을 바탕으로 행동의도의 개념을 직업훈련기관의 조리교육생의 총체적 평가로 어떤 대상에 대하여 긍정적 경험형성 후 재방문의도, 추천의도의 특정 미래행동으로 나타나는 개인의지와 신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표 2-4] 행동의도의 개념 정리

연구자	행동의도 개념
이재곤·이규상 (2018)	관광 또는 관광지 관련의 체험에 총체적 평가
박영진(2013)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행동과 평가에 관련되어진 감정반응을 바탕으로 하여 구매의도 또는 재방문의도 같은 미래행동 계획의 의지와 신념
주신옥(2016)	항공권의 구매플랫폼 시스템품질과 고객만족, 행동의도 연구에서 행동의도가 항공권의 구매플랫폼이 편리함, 유용함으로 다시 재이용하고 싶은 의도
주윤희 · 조희영 (2015)	이용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이것을 활용, 실질적 가치 추구하는 것을 의미
배우암·김홍범 (2015)	어떤 제품을 구입함에 있어 특정 미래지향적 행동을 하려는 의지력의 표시로 제품에 관한 신념과 태도
박철호·한수정 (2014)	개인의 예정되거나 계획된 미래의 행동을 의미하고 미래행동을 예측하고 계획하기 위함
양윤의(2014)	호텔 뷔페레스토랑을 이용한 후 소비자가 갖는 호의적 태도와 반복적인 구매행동 또는 타인에게 추천하며 가격이 상승하여도 이용하려는 성향
최연희·이희수 (2013)	소비자들에 대한 태도 형성 후 특정 미래행동으로 나타내는 의지 및 신념
이지훈·구동모 이미정·임성혁 (2011)	제품과 서비스에 관한 평가와 소비행동 등과 관련있는 감정반응을 바탕으로 하여 구매의도, 재방문의도, 추천의도 등과 같은 미래행동의 계획과 변경의지나 신념
이재섭·권안용 (2011)	개인의 예정되거나 계획되어진 미래행동에 관한 의지를 의미하며 자신의 신념과 태도가 행위로 옮겨질 수 있는 확률
김영곤(2009)	신념과 태도가 행동화되는 주관적인 기능으로 관광지와 관련된 체험에 대한 평가

조태영·서태양 (2009)	고 참여자 만족에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고객 상품과 서비스 구매, 사용 또는 평가과정에서 경험하는 호의적 감정 또는 비호의적 감정과 태도
Schiffman & Kanuk,(2007)	소비자의 지각된 감정 또는 내적반응과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행동계획과 수정의. 의지 또는 신념
Gilmore & Pine (2000)	미래의 행동의도를 나타내는 변수로 구전정보의 생생함으로 정의
Zeithaml & Parasuraman (1996)	소비행동의 예측 요인으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실행 가능 계획으로 정의
Engel & Miniard(1995)	소비자의 예상과 계획에 관한 미래의 행동신념과 태도가 행동으로 표현될 확률

출처 :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논자 구성

2.4.2 행동의도의 선행연구

서비스 소비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개인적인 의견에 큰 영향을 받으므로 구전커뮤니케이션의 이해와 통제는 서비스기업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이흥연, 2010). 행동의도를 긍정적 구전, 재 구매의도로 측정하였으며, 서비스 회복과정 후의 고객만족은 행동의도(긍정적 구전, 재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철환, 2011).

국외연구는 Yoon & Rolland(2015)는 연구에서 IS 성공모형과 기술수용이론(TAM)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만족이 지속적으로 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이런 지속적인 이용의도가 실제의 SNS에 지속적으로 이용 연결됨을 확인하였다.

Ryu et al.(2012)은 연구에서 레스토랑의 물리적인 환경과 음식, 서비스가 고객의 만족과 행동의도에 미치고 있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분위기와 전반적인 경험에 대한 만족의 정도를 만족으로, 행동 의도는 재방문의 의도와 추천의도, 긍정적인 구전의도 등으로 구성 연구진행을 하였다. Anand &

Rakesh(2011)는 서비스 이용 후 고객만족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태도적 충성도의 매개역할을 검증하였다. 태도적 충성도는 고객만족과 행동의도 사이에서 완전매개의 역로 작용되었으며, 부정적 태도적 충성도는 추가지불의 사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Riadh(2009)는 캐나다 호텔 이용객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하여 호텔 서비스 이용 후 지각된 서비스 품질이 감정적 만족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행동의도의 유의한 영향을 확인하였다. 특히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추천의도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충성도, 추가지불의사 순으로 유의한 영향 관계가 있음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Thong et al.(2006)은 연구에서 인터넷과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이용의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증적인 연구를 진행한 결과에서 용이성, 유용성, 기개일치, 즐거움 등이 모두 만족스런 영향을 미쳐 지속적인 사용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Bhattacharjee(2001) 연구에서 정보시스템 분야의 뛰어난 시스템 구현을 한다 하여도 소비자가 이용하지 않으면 시스템에서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기대할 수가 없어 소비자가 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정보시스템 개발과 구현보다 중요한 궁극적 목표라 주장하였다. 추천의도는 재방문의도와 함께 많이 사용되어지는 미래 행동의도를 나타내는 변수로 구전정보의 생생함 때문이라 정의하였으며, 구전에 의한 정보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경험이 직접 전달되므로 다른 정보 원천보다 더 생생하며, 기억으로부터 보다 빠르고 쉽게 소비자 행동에 대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였다(Gilmore, D. and Pine, B. J, 2000).

기존 고객이 가지고 있는 충성도 향상, 마케팅 실패비용의 감소, 기존 고객의 이탈방지 등의 이점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고객들이 추후에 재 구매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승시켜준다(Fornell, 1992). 재 구매 의도를 다룬 몇몇 다른 연구에서는 재 구매와 같은 반복적 구매행위는 고객 충성도나 브랜드 충성도와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Zeithaml, 1981; Bearden & Teel, 1983). Reichheld(2000) 연구에서 지속적인 이용의도에 대한 기업에착과 만족도로 쇼핑물에 대하여 지속적 방문과 이용하고자 하는 충

성의도로 정의하고, 특정의 브랜드에 관한 소비자 충성도가 높아질수록 재 구매의 의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기업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이용의 의도는 중요 요소임을 주장하고 있다.

국내의 선행연구에서 이재곤·이규상(2018) 연구에서 행동의도를 관광 또는 관광지와 관련된 체험의 총체적 평가이며, 관광의 목적지 방문과 관광객이 어떤 느낌을 받아서 다시 방문하려고 하는 재방문의도와 자신이 경험하거나 느꼈던 긍정과 부정적인 것을 타인에게 전하려고 하는 추천의도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조진호(2018) 연구는 모바일의 간편 결제 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서비스품질과 신뢰, 고객만족, 지속적인 이용의도의 유의한 영향관계 분석 결과에서 신뢰 및 고객만족의 지속적인 이용의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윤지현(2017) 연구에서 축제체험 및 행동의도의 연구에서 재방문에 의도는 소비자가 어떤 축제와 관광지를 방문한 이후 반복적으로 방문할 가능성으로 말하며, 추천 의도는 소비자들이 경험한 이후 보이는 외부 커뮤니케이션으로 말하며, 구전 의도는 상호대화 등을 통해 일반적으로 직접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며 획득하는 행위라 하였다.

용석홍(2016) 연구는 문화관광축제와 행동의도 연구에서는 재방문의 의도와 추천의 의도 2개 하위요인으로 행동의도를 구성하였고, 재방문의 의도는 방문하였던 곳을 방문자가 재방문하고자하는 욕구이며, 추천의 의도는 방문하였던 곳에 관하여 방문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한 정보를 타인에게 비공식, 긍정적으로 구전과 추천하고자 하는 욕구로 주장하고 있다. 양윤의(2014) 연구는 호텔 뷔페레스토랑을 이용한 이후 갖는 소비자의 호의적 태도로 태도에 따른 반복적인 구매행동과 타인에게 추천하고 가격상승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려는 성향이라 정의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양영순(2014) 연구는 SNS 사용자의 개인적인 특성과 서비스의 특성, 사회적인 특성으로 신뢰와 만족 및 태도에 중요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변수로 설정하였고 그에 따른 지속적인 이용의도와 관계규명 결과, 신뢰와 호의적인 태도가 지속적인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연구하였다. 구본수·신진호·김차용(2014) 연구는 호텔의 피트니스 클럽과 서비스 품질과 관련 된 연구에

서 고객의 행동의도에 대하여 구매의사, 타인추천의사로 구성하여 연구하였다. 또한 김성태(2013) 연구는 항공사의 지각가격과 서비스 품질, 행동의도의 유의미한 관계에서 행동의도의 구성요인으로 재방문의도와 추천의도로 연구하였다.

황복주·이계천(2012)은 서비스가치가 고객 행동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고객만족을 통해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세희(2013) 연구는 행동의도에 대하여 재방문의도와 추천의도로 측정하였고, 커피전문점 이용객들의 긍정적인 감정은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권해익(2011) 연구는 웹사이트의 기능성을 편리성과 신속성으로, 사이트의 부가서비스를 주문 및 결제, 배송과 A/S로 구성하고, 웹사이트의 신뢰성을 안전성과 보안성으로, 온라인 쇼핑사이트의 성공과 고객만족의 영향요인으로 정보품질 및 경제성으로 선정하고 온라인 쇼핑사이트의 채널만족, 지속적인 이용의도에 대하여 연구결과에서 신속성을 제외한 주문 및 결제, 편리성, 배송과 A/S, 정보품질, 안전성, 보안성, 경제성 등이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채널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관계를 확인하였다. 또한 온라인 쇼핑사이트 채널만족은 지속적인 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온라인 쇼핑사이트 성공과 고객만족, 지속적인 사용의도 간의 영향관계에서 온라인 쇼핑사이트의 채널만족은 부분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남은우(2011)는 관계 질과 행동의도 간의 관계검증 결과를 보면 블로그 이용자의 행동의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은 몰입이고 그 다음이 신뢰와 만족의 순서로 영향을 미쳤다. 전태유·박노현(2010) 연구는 충성도에 대하여 행동, 태도 측면의 두 가지 통합개념으로, 행동 의도는 충성도의 호의적 태도의 측정방법이다. 김동수·손병모(2011) 연구는 형성된 만족에 따라 영향을 받는 변수로 추천 의도, 만족고객이 재방문하면 충성고객이 되며, 구전에 의한 신규고객 창출로 고객의 미래 행동에 대한 의도 파악이 마케팅 측면에서 실제로 유용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행동의도를 선행연구(황복주·이계천, 2012; Anand & Rakesh, 2011; 남은우, 2011)의 연구를 바탕으로 서비스 이용 후 진로성숙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2.5 자기조절

2.5.1 자기조절의 개념

자기조절능력은 사회화 과정을 거치며 급변해 가는 사회에 적응하며 다양한 사람들 사이에서 효율적 관계를 맺기 위하여 타인 뿐 아닌 스스로의 행동과 사고, 감정을 이해하며 상황에 맞추어 조절하는 능력이다(백정빈, 2009). 자기조절능력의 개념에서 조절(regulation)이란 내부의 심리적인 정서나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반응하는 조정능력을 말한다(장진아·곽노의, 2013). 심리학의 용어사전에 따르면 자기조절은 태도나 규범을 통하여 형성되는 개인의 의도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의식적 과정과 무의식적 과정원리이다(한국심리학회, 2014). 자기조절이란 용어에 이미 그 의미가 묻어나듯, 스스로의 조절시도가 핵심개념이다(김교현, 2006; Carver & Scheier, 1998). 자율성을 강조하게 되는 학습에 있어 자기조절이란 학습과정의 전반을 포괄하여 주관하는 핵심이라 할 수 있고(Jarvela & Jarvenoja, 2011; Zimmerman, 2008), 자기조절(self-regulation)이란 복잡한 인지적 조작능력의 강조기능으로 자기관리, 자기평가, 상위인지의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최해주, 2007; 신혜린, 2017). 즉 자기조절이란 타인의 지시와 명령 또는 내면화되어진 사회규범에 의하여 자신의 행동 및 욕구를 억제하는 자기통제(self-control)와는 다르게 자신의 계획이나 목표 달성을 위해 스스로의 욕구와 정서, 행동 및 사고 등을 조절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최해주, 문수백, 2012).

자기조절능력은 학습목표 달성을 위하여 학습자의 사고, 동기, 행동의 체계적 사용으로 자신의 학습활동 과정에서 목표를 향한 인지적, 행동적, 동기적으로 스스로를 적극적 통제하는 것이다(Pintrich, 1990). Zimmerman(1986)은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가’의 물음에 대하여 논의하기 시작하여 학습능력을 갖춘 학습자가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학습 진행을 해나가는지 연구하였다. 이는 자기조절학습능력이 학습자의 학습활동에 있어 스스로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목적 지향적 행동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학업성취를 높이기 위한 인지전략과 메타인지전략의

체계적 사용으로 학습과정에서 학습방법과 효과를 점검하기 위한 자기 지향적인 피드백 사용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김동준, 2012; 양명희, 2000). 이명진(2011)의 연구는 자기조절력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로 사용된 목표 지향적인 행동, 또는 학습 향상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노력이라고 정의하였다.

김미정(2018)의 연구는 자기조절학습능력을 자신이 가진 능력발휘를 통하여 자신에 맞게 정보가공을 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학습'이라고 정의하였다. 김영신(2015)의 연구는 최고의 목표 도달을 위해 현재의 자신의 태도를 검토하고, 계획하여, 행동하는 아주 작은 세부적인 목표로 부터 최고의 목표도달까지 지속적인 조절을 해나가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개인생활 또는 사회문화적 생활에서 바람직한 행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요인 중 하나를 자기조절 능력이라 한다. Granic(2002)의 연구는 사람은 본인의 환경을 변화하지 않도록 하며, 본인의 생체주기 지속을 위하여 꾸준히 자기조절의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런 일정한 상태 유지를 위한 자연의 항상성원리가 자기조절 능력이라 할 수 있으며, 자기조절능력은 가장 기본원리라고 할 수 있다. Rothbart & Bates(2006)는 자기조절능력을 의도적인 통제로 볼 수 있으며, 지배적 반응을 통제하며 계획수립을 하고 실수의 발견 등의 이차적 반응의 활성화 능력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Muraven & Baumeister(2000)의 연구는 자기조절능력에 대하여 스스로의 생각 또는 감정표현을 위하여 행동할 경우 사용하는 인지적인 자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Carver & Scheier(2013)의 연구는 이런 최고의 가치 추구 태도를 자기조절 능력이라고 보았다.

Koole 등(2013) 연구는 자기조절능력의 개념에 대하여 사람들이 정서를 조절하는 동안의 통제과정이라고 하였고, 통제과정이란 사람들이 정서조절에 대하여 요구를 확인하고, 정서를 조절하게 하는 행동을 취하도록 결정해주며, 이런 정서의 조절이 필요한 자기조절능력이 인지적 통제과정이라고 주장하였다. Eisenberg, Smith & Spinrad(2013)의 연구는 자기조절능력의 개념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실수가 발견되면 선택행동과 수집 정보를 통합하여 새로이 집행하는 기능의 과제 이외에도 행동과 관심에 대하여 조절하고 활성화시켜 계획하거나 억제하는 능력이라고 주장하였다. Finkel & Fitzsimons(2013)의 연구는 자기조절능력에 대하여 목표를 위한 외적인 반응

과 내적인 상태의 확인을 통하여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표 2-5] 자기조절의 개념 정리

연구자	자기조절 개념
김미정(2018)	자신이 가진 능력발휘를 통하여 자신에 맞게 정보가공을 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학습
김영신(2015)	최고의 목표 도달을 위해 현재의 자신의 태도를 검토하고, 계획하여, 행동하는 아주 작은 세부적인 목표로 부터 최고의 목표도달까지 지속적인 조절을 해나가는 능력
최해주·문수백 (2012)	타인의 지시와 명령 또는 내면화되어진 사회규범에 의하여 자신의 행동 및 욕구를 억제하는 자기통제(self-control)와는 다르게 자신의 계획이나 목표 달성을 위해 스스로의 욕구, 정서, 행동, 사고 등 조절하는 행위
이명진(2011)	일반적인 정의로 사용된 목표 지향적인 행동, 또는 학습 향상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노력
Carver & Scheier(2013)	최고의 가치 추구 태도
Koole 등(2013)	사람들이 정서를 조절하는 동안의 통제과정
Eisenberg, Smith & Spinrad(2013)	계획을 수립하고, 실수가 발견되면 선택행동과 수집 정보를 통합하여 새로이 집행하는 기능의 과제 이외에도 행동과 관심에 대하여 조절하고 활성화시켜 계획하거나 억제하는 능력
Finkel & Fitzsimons(2013)	목표를 위한 외적인 반응과 내적인 상태의 확인을 통하여 변화시키는 능력
Rothbart & Bates(2006)	의도적인 통제로, 지배적 반응을 통제하며 계획수립을 하고 실수의 발견 등의 이차적 반응의 활성화 능력
Granic(2002)	일정한 상태 유지를 위한 자연의 항상성원리
Muraven & Baumeister(2000)	스스로의 생각 또는 감정표현을 위하여 행동할 경우 사용하는 인지적인 자원
Pintrich, (1990)	학습목표 달성을 위하여 학습자의 사고, 동기, 행동의 체계적 사용으로 자신의 학습활동 과정에서 목표를 향한 인지적, 행동적, 동기적으로 스스로를 적극적 통제하는 것

출처 :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논자 구성

2.5.2 자기조절의 선행연구

손승아·안경숙·김승경(2006) 연구는 자기조절능력이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높다고 하였다. 윤영신(2007) 연구는 청소년의 자기조절능력 관련 변인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받는 스트레스에 청소년의 자기조절양식은 부(-)적 관계가 있으며 의지적 억제양식은 정(+)적 관계에 있다고 하였다. 이운순(2017) 연구는 교사지지 및 학습몰입 간에 자기조절력은 부분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지지가 학습몰입에 단독 영향력보다 자기조절력이 매개하는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커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자기조절력을 하위요인별로 보면 인지조절, 동기조절, 정서조절에서는 교사지지에 대한 회귀계수가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직접적인 관련성을 확인 할 수 있다.

발달 초기에 형성된 자기조절의 기본적인 패턴은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후의 삶 속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행동적, 정서적 반응의 기틀이 된다(신혜린, 2017). 자기조절학습과정에서는 학습에 대하여 처음의 목표를 유지하고 주변 상황의 방해 속이라도 노력과 수행을 지속하고자 하는 과정에 의지의 통제가 작용한다. 그리고 의지통제는 자기조절학습의 하위영역과 활용하는 학습전략 및 학습자의 동기적 요소 등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정연숙, 2015). 행동적 자기조절은 외형적 행동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초점을 두고, 환경의 변화에 적응이 용이하도록 민첩하고 융통성 있게 자신의 행동을 규제하고 조정해 가는 과정을 말한다(유혜숙, 2015).

자기조절학습의 구성요인을 인지, 동기, 행동으로 보고 이들 간의 관계성을 살펴 본 연구에서는 동기전략과 행동전략의 관계에서 인지전략은 부분매개효과를 보였으며, 이 과정에서 교사지지가 조절효과를 보인다고 하였다(임이랑·오인수·김연희, 2014). 심혜숙·황경진(2013) 연구는 자기조절능력과 긍정적인 사고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적응도 잘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신숙(2013) 연구는 중학생의 자기조절능력은 사회적인 유능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교사의 의사소통과 리더십 유형과 종속변인 간의 관련성 입증을 하고 있다. 양명희·권재기(2013) 연구는 순수긍정형의 학습자들은 자기조절의 노력과 관련 된 동기적인 형태에서 월

등한 우수모습을 나타낸 반면 부정형의 학습자는 학습에 관한 외재적인 동기, 불안이 높으며 자기조절의 노력은 저조한 형태를 나타냈으며 긍정적인 정서의 지각은 수업과 시험 및 학습 상황에서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며 부정적인 정서는 상황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혼자 공부하는 상황에서 특히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박선영(2013) 연구는 남자 중학생들이 자신의 정서조절 방향으로, 정서를 숨기거나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적 재해석으로 정서 발생 상황에 대하여 중립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정서 재해석을 사용 하도록 지지하는 것이 외형화와 내재화의 행동문제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자기조절학습은 이후의 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더하여 학업성취도 또한 이후의 자기조절학습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으며 이 때 학업성취도가 이후의 자기조절학습에 주는 영향의 크기가 자기조절학습이 이후의 성취도에 주는 영향의 크기보다 오히려 크다(양명희, 이정아, 2012). 공동체 또는 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또래들과 관계를 맺으며 친구들 간의 서로 다른 생각을 수용하고 감정을 조절할 줄 알며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우혜진, 2012). 자기조절학습전략은 자기효능감, 타인기대, 학업성취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으며, 자기효능감과 타인기대는 자기조절학습전략을 매개로 하여 학업성취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류관열, 엄우용, 최성열, 2010). 자기조절학습전략은 자기효능감, 타인기대, 학업성취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으며, 자기효능감과 타인기대는 자기조절학습전략을 매개로 하여 학업성취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류관열, 엄우용, 최성열, 2010).

허정경(2004) 연구는 자기조절 구성요인을 세 개의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인지적인 자기조절과 정서적인 자기조절, 행동적인 자기조절을 제시하였다. Miller & Byrnes(2001) 연구는 자기조절능력을 의사결정과정으로 보고 있으며 목표성취, 학업과 사회관계, 동기, 사회행동의 다섯 가지의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자기점검의 과정은 인지과정에 대하여 지속적 통제라 할 수 있으며 자신의 행동이 목표를 향하여 얼마나 잘 나아가고 있는가를 살펴 스스로 관찰하고 평가과정과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하게 전략을 선택하게 되는 메타인

지과정의 자기조절능력에 기초가 된다(류명구, 2013; 송혜영, 2007; 이정란, 2003). 자기조절학습은 학습자가 학습과정에 참여하는 동안 학습전략을 사용하여 자신의 모든 사고와 행동을 집중함으로써 이루어진다(정미선, 2007).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학습자의 의지는 학습동기와 연결되고 학습 동기는 학습자의 개인적 가치 및 성향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안미경, 2009; 최수영, 2012). 자기조절학습 구조는 하위영역과 하위 요인을 포함한 위계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자기조절학습능력이 연령에 따라 노력 없이 발달하는 것은 아니나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따라 그 정도와 특성이 달라진다(정미경, 2008).

이영주(2007) 연구는 부모에 대한 애착이 자기조절능력 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 발표를 하였다. 국내의 자기조절학습 연구에서도 자기조절학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결과가 있다(김현심, 2009; 박재찬, 2006; 전경옥, 2006; 조미경, 2008; 조혜경, 2001; 홍기철, 2009). 조혜경(2001)은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높은 학생은 자기조절 학습전략 활용의 수준이 높아 학습목표 도달에 성공하기 쉽고, 문제의 인식 능력도 높기 때문에 문제해결능력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임이랑·오인수·김연희, 2014; 심혜숙·황경진, 2013; 정연숙, 2015)를 바탕으로 자기조절을 노력과 수행을 지속하고자 하는 정도로 연구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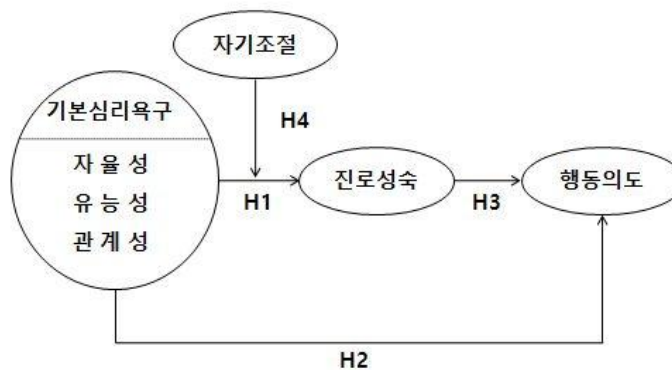
Ⅲ. 연구 설계

본 장에서는 직업훈련기관의 조리교육생을 대상으로 기본심리욕구 진로성숙, 행동의도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자기조절이 기본심리욕구와 진로성숙, 행동의도 사이를 조절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연구가설을 수립하였다. 또한 연구목적에 적합한 조사방법을 사용하고 표본구성, 설문지 구성, 자료수집방법 등의 제시와 통계적 분석기법을 이용한 가설검증을 하였다.

3.1 연구 모형 및 가설

3.1.1 연구모형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생들의 기본심리욕구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진로성숙, 행동의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자기조절이 기본심리욕구와 진로성숙에 조절역할을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기존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도출하였다. 연구모형은 다음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연구모형

3.1.2 연구가설

연구 가설(hypothesis)은 문헌조사에서 얻은 결과로 연구진행에 있어 결과를 예측하고 가상적 진술을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논의 된 이론적 배경에서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설계한 연구 모형의 인과관계를 토대로 한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기본심리욕구는 진로성숙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기본심리욕구의 자율성은 진로성숙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기본심리욕구의 유능성은 진로성숙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 기본심리욕구의 관계성은 진로성숙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기본심리욕구는 행동의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기본심리욕구의 자율성은 행동의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기본심리욕구의 유능성은 행동의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기본심리욕구의 관계성은 행동의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진로성숙은 행동의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자기조절은 기본심리욕구와 진로성숙에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4-1. 자기조절은 자율성과 진로성숙에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4-2. 자기조절은 유능성과 진로성숙에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4-3. 자기조절은 관계성과 진로성숙에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3.2 연구 설계와 분석방법

3.2.1 변수의 조작적정의

개념적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다른 해석이 주어 질 수 있으므로 연구자는 연구대상의 변수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할지 명확하게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이를 변수의 조작적 정의라고 한다.

본 연구의 모형과 가설 검증을 위한 변수의 개념정의를 이루어져야 하고 변수의 관계정리의 필요성이 있다. 독립변수에는 기본심리욕구가 있고 종속변수에는 진로성숙과 행동의도의 측정지표를 사용하였으며 자기조절을 조절변수로 측정 하였다. 이에 본 연구모형의 사용변수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3.2.2.1 기본심리욕구

사람들의 행위동기에 대하여 기본 욕구로 설명하는 개념이며 다양한 실험이나 현장연구에서 나타나는 동기부여의 현상 설명을 위하여 개발(Deci, & Ryan, 2014)되었다.

사람이 생존을 위하여 영양분이 필요하듯 사람이 심리적으로 반드시 충족되기 위하여 필요한 영양소(김아영, 2010)라고 할 수 있다.

기본심리욕구를 선행연구(Deci, & Ryan, 2014; Deci & Ryan, 2002; 이명희·김아영, 2008; Deci & Ryan, 2017; 김아영, 2010)를 바탕으로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하위요인으로 규정하고 선행연구(김윤선, 2018; 이영진, 2018; 최주연, 2015; 조준희, 2011; 금민지, 2015; 오상철, 2015; 김진성, 2017; 신보라, 2013; 박예림, 2017; 박민정, 2019; 김지훈, 2011; 이새롬,

2011; M Vansteenkiste & RM Ryan, 2013; Van den Broeck, D. Lance Ferris, Chu-Hsiang Chang, 2016)를 바탕으로 측정도구와 항목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였고, 하위요인의 ‘자율성’ 4문항, ‘유능성’ 4문항, ‘관계성’ 4문항으로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측정척도는 Likert 5점 척도 (1=‘전혀 그렇지 않다’로 부터 5=‘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다.

3.2.2.2 진로성숙

진로성숙도를 스스로 진로에 관한 자기이해와 일과 직업의 세계를 이해하며 진로 발달을 위하여 지식습득을 계획하여 나가는 수준(이현주, 2017; 이현미·정제영, 2017)과 진로계획수립과 선택 진로의 반경을 이해하고 발달적인 진로과업 성취의 수준(임성애·이은주, 2017)으로 정의하였다.

선행연구(이재우, 2018; 이영남, 2019; 신성현, 2019; 박혜영, 2019; M. S. Ismail, S. S. Abdullah, M. Z. Mohamad, W. M. K. F. W. Khairuldin, 2018)를 바탕으로 측정도구와 항목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였고, 5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측정척도는 Likert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로 부터 5=‘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다.

3.2.2.3 행동의도

행동의도를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행동과 평가에 관련되어진 감정반응을 바탕으로 하여 구매의도 또는 재방문의도 같은 미래행동 계획의 의지와 신념(박영진, 2013)으로 정의하였다.

선행연구(이동숙, 2018; 유민형, 2017; RJ Guerin, MD Toland, AH Okun, 2018)를 바탕으로 측정도구와 항목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였고, 5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측정척도는 Likert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로 부터 5=‘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다.

3.2.2.4 자기조절

자기조절을 내부의 심리적인 정서나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반응하는 조정 능력(장진이·곽노의, 2013)이라 하였으며 한국심리학회(2014)는 태도나 규범을 통하여 형성되는 개인의 의도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의식적 과정과 무의식적 과정원리라 정의 하였다.

선행연구(조현미, 2018; 엄진옥, 2018; 김미정, 2019; 이영남, 2019; F Stebner , C Schuster, T Dicke , Y Karlen, 2019)를 바탕으로 측정도구와 항목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였고, 8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측정척도는 Likert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로 부터 5=‘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다.

3.2.2 설문지구성

본 연구에 따른 실증조사를 위하여 설문지 구성을 하였으며 연구의 설문 대상은 서울, 경기도 소재의 직업훈련기관에서 교육중인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의 일반특성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제외한 이후 총 문항 수는 4개 부분 30개 문항이다.

첫째, 기대심리욕구에 대한 문항 구성은 자율성 4개 문항, 유능성 4개 문항, 관계성 4개 문항으로 총 12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진로성숙에 대한 문항의 구성은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행동의도에 대한 문항의 구성은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넷째, 자기조절의 문항 구성은 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완성 설문구성은 [표 3-1] 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3-1] 설문지 구성

변 수	문항수	척 도	선행연구
기본 심리욕구	자율성 4	Likert 5점 척도	김윤선(2018), 이영진(2018) 최주연(2015), 조준희(2011) 금민지(2015), M Vansteenkiste & RM Ryan (2013), Van den Broeck, D. Lance Ferris, Chu-Hsiang Chang(2016)

	유능성	4		오상철(2015), 김진성(2017) 신보라(2013), 박예림(2017) M Vansteenkiste & RM Ryan (2013) Van den Broeck, D. Lance Ferris, Chu-Hsiang Chang(2016)
	관계성	4		박민정(2019), 김지훈(2011) 이새롬(2011), M Vansteenkiste & RM Ryan (2013), Van den Broeck, D. Lance Ferris, Chu-Hsiang Chang(2016)
진로성숙		5	Likert 5점 척도	이재우(2018), 이영남(2019) 신성현(2019), 박혜영(2019) M. S. Ismail, S. S. Abdullah, M. Z. Mohamad, W. M. K. F W. Khairuldin(2018)
행동의도		5	Likert 5점 척도	이동숙(2018), 유민형(2017) RJ Guerin, MD Toland , AH Okun(2018)
자기조절		8	Likert 5점 척도	조현미(2018), 엄진욱(2018), 김미정(2019) 이영남(2019), F Stebner , C Schuster, T Dicke , Y Karlen(2019)
인구 통계학적 특성		8	명목척도, 서열척도	

3.2.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한 설문은 서울과 경기도지역의 직업훈련기관 조리교육생들을 모집단으로 한정하였다. 본 조사는 응답자의 성실한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복권(lotto)을 선물로 제공하였으며 본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한 설문조사는 2019년 10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16일간 실시하였으며,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생을 중심으로 320부의 설문중 설문 회수 결과 305부로 회수율이 95.3%이며 불성실 응답의 설문 24

부를 제외한 281부(87.8%)를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표 3-2] 는 모집단에 대한 규정과 표본에 대한 정리표이다.

[표 3-2] 모집단의 규정 및 표본

모집단	직업전문학교 조리교육생
표본단위	서울 · 경기도 소재 직업전문학교 교육생
조사 기간	2019년 10월 15일 ~ 10월 30일(15일간)
자료수집 방법	설문서를 이용한 자기기입법
표본의 크기	320부
회수된 표본	305부(95.3%)
유효 표본	281부(87.8%)

연구자는 본 연구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필요정보의 최대 수집을 위하여 바람직한 연구결과 도출을 위하여 앞서 제시하는 연구 모형과 가설설정과 가설검증을 위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되어진 설문지에 대한 응답이 완료된 자료들을 회수하여 유효 표본만을 추출하였다. 지침에 따른 코딩작업으로 부호화하였고 부호화 된 자료 분석은 SPSS 22.0 통계패키지 프로그램 사용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표본의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측정도구 신뢰성 분석을 위하여 설문지의 항목들에 관하여 내적일관성과 단일차원성의 분석을 위하여 cronbach's alpha의 계수와 특정적 개념의 명확한 반영을 요인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셋째, 연구 가설 1은 기본심리욕구가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진로성숙을 종속변수로, 기본심리욕의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넷째, 연구 가설 2는 진로성숙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다섯째, 연구 가설 3은 자기조절이 기본심리욕구와 진로성숙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분석을 위한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IV. 실증분석

4.1 인구통계특성

본 연구조사의 응답한 조사대상자의 설문에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빈도 분석 실시한 분석 결과는 다음의[표 4-1]과 같다.

[표 4-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 따른 빈도 분석

구 분		빈도(n=281)	비율(%=100)
성별	남자(男子)	119	42.3
	여자(女子)	162	57.7
연령	20~29세	119	42.3
	30~39세	79	28.1
	40~49세	56	19.9
	50세 이상	27	9.6
가구당 월 평균 소득	200만원미만	69	24.6
	200~300만원미만	70	24.9
	300~400만원미만	43	15.3
	400~500만원미만	21	7.5
	500만원 이상	78	27.8
결혼	기혼(既婚)	95	33.8
	미혼(未婚)	183	65.1
	기타	3	1.1
정보원천	고용센터	54	19.2
	인터넷	145	51.6
	지인추천	43	15.3
	기타	39	13.9
교육목적	자격증 취득	62	22.0
	취업	166	59.1
	자기개발	14	5.0
	기타	39	13.9
학력	중.고등학교재학/졸업	94	33.5
	2년제 전문대학재학/졸업	97	34.5
	4년제 대학재학/졸업	76	27.0
	대학원이상	14	5.0
합계		281	100

성별에서는 남자(男子)가 119명으로 42.3%, 여자(女子)가 162명으로 57.7%, 총인원 281명으로 여자(女子)가 남자(男子)에 비해 많은 분포를 보여 조리교육생은 여자(女子)의 비중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나이는 20~29세가 119명으로 42.3%, 30~39세가 79명으로 28.1%, 40~49세가 56명으로 19.9%, 50세 이상 27명으로 9.6%로 조사되어 20~29세의 분포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월 가구 소득은 200만원 미만은 69명으로 24.6%, 200만원~300만원 미만은 70명으로 25.9%, 300만원~400만원 미만은 43명으로 15.3%, 400만원~500만원 미만은 21명으로 7.5%, 500만원 이상은 78명으로 27.8%를 나타내 500만원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결혼여부는 기혼(既婚) 95명 33.8%, 미혼(未婚) 183명 65.1%, 기타 3명 1.1%로 미혼의 비중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교육을 받게 된 정보의 원천은 고용센터 54명 19.2%, 인터넷 145명 51.6%, 지인추천 43명 15.3%, 기타 39명 13.9%로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교육목적은 자격증 취득 62명 22.0%, 취업 166명 59.1%, 자기개발 14명 5.0%, 기타 39명 13.9%으로 취업목적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최종학력은 중·고등학교재학/졸업이 94명으로 33.5%, 2년제 전문대학교재학/졸업이 97명으로 34.5%, 4년제 대학교재학/졸업이 76명으로 27.0%, 대학원 이상이 14명으로 높은 학력수준을 보여 주고 있다.

4.2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4.2.1 기본심리욕구

기본심리욕구에 대하여 직업학교 조리 교육생들이 인지하는 자율성과 유능성, 관계성에 대한 분석 결과표는[표 4-2]와 같다. 분석결과는 자율성에서 ‘나는 타인의 생각보다 내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M=3.733), 유능성에서 ‘나는 새로운 것에 대한 이해능력이 뛰어나다.’(M=3.409)로 가장 높았으며, 관계성에서 ‘나는 친구들의 고민 상담을 잘 들어준다.’(M=3.751)로

가장 높았으며, 전체적으로 보면 관계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4-2]기본심리욕구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요인	항 목	평 균	표준 편차
자 율 성	나는 타인들로부터 통제를 받지 않는다.	3.427	.9426
	나는 어떠한 경우든 스스로 결정을 한다.	3.637	.9161
	나는 어떤 상황이던 강요받아 하지 않는다.	3.587	.8986
	나는 타인의 생각보다 내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3.733	.9122
유 능 성	나는 내 자신이 매우 효율적이라 생각한다.	3.253	.8261
	나는 다른 사람보다 잘 하는 것이 많다.	3.125	.8796
	나는 새로운 것에 대한 이해능력이 뛰어나다.	3.409	.9746
	나는 내게 주어진 일을 능숙하게 잘 해결할 수 있다.	3.345	.8526
관 계 성	나는 다른 사람들과 공감대 형성을 잘하는 편이다.	3.569	.9275
	나는 타인에 대해 긍정적이고, 친밀감을 갖는다.	3.633	.8929
	나는 평소 주변사람과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	3.665	.9460
	나는 친구들의 고민 상담을 잘 들어준다.	3.751	.9866

4.2.2 진로성숙

진로성숙에 대하여 직업학교 교육생들이 인지하는 분석 결과표는[표 4-3]와 같다. 분석결과는 ‘나는 소신 것 직업을 선택 한다.’는 것이 ($M=3.630$), ‘나는 나의 진로에 대하여 확실하게 결정을 한 상태이다.’($M=3.566$)로 높게 나타났다.

[표 4-3]진로성숙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요인	항 목	평 균	표준 편차
진 로 성 숙	나는 나의 진로에 대하여 확실하게 결정을 한 상태이다.	3.566	.9431
	나는 원하는 직업을 위해서는 미리 계획을 세운다.	3.505	.8499
	나는 진로계획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적극적이다.	3.534	.9022
	나는 직업의 성공사례를 관심 있게 듣는다.	3.402	.9848
	나는 소신 것 직업을 선택 한다.	3.630	.8773

4.2.3 행동의도

행동의도에 대하여 직업학교 교육생들이 인지하는 분석 결과표는[표 4-4]와 같다. 분석결과는 ‘나는 수강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주변인에게 수강하도록 적극 추천하겠다.’는 것이 (M=3.794), ‘나는 향후 현재 교육기관을 선택하여 재등록할 것이다.’(M=3.637)로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4-4]행동의도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요인	항 목	평 균	표준 편차
행 동 의 도	나는 수강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주변인에게 수강하도록 적극 추천하겠다.	3.794	.7838
	나는 수강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주변에 자랑하고 싶다.	3.616	.8629
	나는 현재 교육프로그램 이외의 다른 교육프로그램을 계속하여 재수강 할 것이다.	3.584	.9069
	나는 수강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 이외 교육프로그램도 적극 주변에 추천할 것이다.	3.623	.8536
	나는 향후 현재 교육기관을 선택하여 재등록할 것이다.	3.637	.8964

4.2.4 자기조절

자기조절에 대하여 직업학교 교육생들이 인지하는 분석 결과표는 [표 4-5]와 같다. 분석결과는 ‘나는 지금의 교육은 나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는 것이 (M=3.893), ‘나는 많은 노력이 필요해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학습내용을 좋아한다.’(M=3.790)로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4-5] 자기조절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요인	항 목	평 균	표준 편차
자 기 조 절	나는 지금의 교육은 나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3.893	.7718
	나는 배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다.	3.520	.8370
	나는 노력한 만큼의 좋은 결과를 얻는다.	3.754	.8019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학습능력이 매우 우수하다.	3.185	.8791
	나는 아무리 어려운 과제라도 노력하면 해 낼 수 있다.	3.648	.8065
	나는 지금 배우는 내용이 흥미롭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한다.	3.690	.8784
	나는 많은 노력이 필요해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학습내용을 좋아한다.	3.790	.8031
	나는 지금 배우는 내용이 살아가는데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3.776	.8637

4.3 변수의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

신뢰성은 어떤 연구문제에 대해 연구자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대해 그 조사를 반복한다고 가정할 경우 결과가 얼마만큼 원래의 측정치와 일치하는가를 나타내는 척도이며 측정방법에는 측정한 항목들을 둘로 나누어 이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계산하는 반분법(split halves method)과 내적일치도(Internal Consistency)를 이용한 방법으로 항목간의 상관관계를 계산해서 변형하는 방법인 크론바 알파(Cronbrach Alpha)계수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 크론바 알파(Cronbrach Alpha)계수는 0~1사이의 값으로 계수가 높아질수록 높은 신뢰성을 판단 할 수 있으며 .6이상이면 사회과학에서는 신뢰도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내적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크론바 알파(Cronbrach Alpha)계수가 0.6 이상이면 보통, 0.7 이상이면 높은 측, 0.8 이상은 매우 높은 것(권혁성, 2014)으로 해석하여 신뢰성이 낮은 항목을 제거하며 알파계수의 향상으로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높일 수도 있다. 타당성은 연구자의 설문자료가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되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평가방법은 내용타당성, 기준타당성, 개념타당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김예영, 2013) 측정하려 하는 개념과 특성을 정확히 측정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타당성을 검증하게 된다. 이런 분석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석기법으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은 변수들 간의 공분상과 상관관계 등을 이용하여 상관관계를 기반으로 변수에 내재된 체계적 구조를 찾아보는 기법으로, 측정지표의 실제의 측정결과가 원래의 이론적 개념에 부합되는가를 평가하는 일반적 분석방법이다. 요인분석은 문항과 변수들 간의 상관성과 구조를 파악하여 여러 변수들이 지닌 정보를 적은수의 요인으로 묶어서 나타내는 분석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여러 많은 변수들을 더 적은 주성분으로 줄여가는 방법인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여 일반적 요인추출은 요인이 설명할 수 있는 분산의 양을 뜻하는 아이겐(eigen)값을 기준으로 아이겐 값이 1.0이라는 의미는 변수하나 정도의 분산을 축약한다는 의미이므로 1.0이상인 요인들을 추출(김지연, 2013)하였으며 요인 적재치(factor loading)는 0.40 이상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인 다중 공선성을 제거하기 위한 직각회전(varimax)방식으로 나타냈다. 변수들 간의 편상관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변수의 숫자와 케이스의 숫자의 적절성을 나타내는 표본의 적합도를 의미하는 KMO(Kaise-Mayer-Olkin)의 측정과 요인분석의 모형에 적합성 여부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요인분석 모형으로서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하여 유의 확률로 파악(석은주, 2013)하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각 항목들 사이의 상관행렬을 확인함으로써 $P < 0.05$ 이면 대각행렬이 아니므로 요인 분석에 적합함을 나타내 주는 방법이다.

4.3.1 기본심리욕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기본심리욕구의 요인분석 및 신뢰성에 대한 분석 실시 결과표는 다음의 [표 4-6]과 같다.

[표 4-6]기본심리욕구에 대하여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요인명	측정항목	구성요소		
		1	2	3
관계성	나는 타인들로부터 통제를 받지 않는다.	.804		
	나는 어떠한 경우든 스스로 결정을 한다.	.863		
	나는 어떤 상황이던 강요받아 하지 않는다.	.820		
	나는 타인의 생각보다 내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813		
자율성	나는 내 자신이 매우 효율적이라 생각한다.		.781	
	나는 다른 사람보다 잘 하는 것이 많다.		.811	
	나는 새로운 것에 대한 이해능력이 뛰어나다.		.734	
	나는 내게 주어진 일을 능숙하게 잘 해결할 수 있다.		.649	
유능성	나는 다른 사람들과 공감대 형성을 잘하는 편이다.			.762
	나는 타인에 대해 긍정적이고, 친밀감을 갖는다.			.747
	나는 평소 주변사람과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			.714
	나는 친구들의 고민 상담을 잘 들어준다.			.620
Eigen-value		6.211	1.393	1.048
설명분산(%)		51.762	11.612	8.734
누적분산(%)		51.762	63.374	72.108
Cronbrach Alpha		.909	.843	.807

KMO = .912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chi^2 = 2012.251$ df= 66 sig. = .000

기본심리욕구에 대한 요인과 변수들 사이의 신뢰성에 대한 검토와 요인분석 실시는 선행연구로부터 도출된 12개의 문항을 요인분석에 적용하였다. 요

인분석은 주성분(principal components) 추출방식 및 베리믹스(varimax) 회전 방식으로 실시하고, 요인분석의 적용 가능성 검정결과를 표본적합도의 KMO 측도는 .912,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는 2012.251, 유의수준은 .000으로 요인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심리욕구의 영향요인에 대하여 요인추출에 대한 결과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으로 3개 하위요인이 도출되어, 총 분산의 설명력은 72.108%로 나타났다. 요인의 각각에 관한 신뢰도 분석결과에서 0.7 이상이면 매우 높은 편에 해당되며 관계성(.909), 자율성(.843), 유능성(.807) 순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4.3.2 진로성숙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진로성숙의 요인분석 및 신뢰성에 대한 분석 실시 결과표는 다음의[표 4-7]과 같다. 진로성숙에 대한 요인과 변수들 간의 신뢰성검토와 요인분석 실시는 선행연구로부터 도출되어지는 5개의 문항을 요인분석에 적용하였다.

[표 4-7]진로성숙도에 대하여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요인	항 목	요인 적재량	아이겐값 (분산률%)	Cronbach's α
진로성숙	나는 나의 진로에 대하여 확실하게 결정을 한 상태이다.	.691	3.181 (63.629%)	.854
	나는 원하는 직업을 위해서는 미리 계획을 세운다.	.807		
	나는 진로계획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적극적이다.	.858		
	나는 직업의 성공사례를 관심 있게 듣는다.	.800		
	나는 소신 것 직업을 선택 한다.	.821		

KMO = .850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chi^2 = 592.363$ df= 10 Sig. = .000

요인분석의 적용 가능성 검정결과, 표본적합도의 KMO측도는 .850,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는 592.363, 유의수준은 .000으로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성숙의 영향요인에 대하여 요인추출에 대한 결과 5개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분산의 설명력은 63.629%로 나타났다. 요인에 관한 신뢰도의 분석한 결과 .854로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4.3.3 행동의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행동의도의 요인분석 및 신뢰성에 대한 분석 실시 결과표는 다음의 [[표 4-8]과 같다. 행동의도에 대한 요인과 변수들 사이의 신뢰성에 대한 검토와 요인분석 실시는 선행연구로부터 도출되어지는 5개의 문항을 요인 분석에 적용하였다.

[표 4-8] 행동의도에 대하여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요인	항 목	요인 적재량	아이겐값 (분산률%)	Cronbach's α
행동 의도	나는 수강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주변인에게 수강 하도록 적극 추천하겠다..	.893	3.745 (74.901%)	.914
	나는 수강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주변에 자랑하고 싶다.	.863		
	나는 현재 교육프로그램 이외의 다른 교육프로그램을 계속하여 재수강 할 것이다.	.837		
	나는 수강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 이외 교육 프로그램도 적극 주변에 추천할 것이다.	.892		
	나는 향후 현재 교육기관을 선택하여 재등록 할 것이다.	.841		

KMO = .880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chi^2 = 959.504$ df= 10 Sig. = .000

요인분석의 적용 가능성 검정 결과, 표본적합도의 KMO측도는 .880,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는 959.504, 유의수준은 .000으로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도의도의 영향요인에 대하여 요인추출에 대한 결과 5개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분산의 설명력은 74.901%로 나타났다. 요인의 신뢰도의 분석한 결과 .914로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4.3.4 자기조절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자기조절의 요인분석 및 신뢰성에 대한 분석 실시 결과표는 다음의[표 4-9]과 같다. 자기조절에 대한 요인과 변수들 사이의 신뢰성에 대한 검토와 요인분석 실시는 선행연구로부터 도출되어지는 8개의 문항을 요인 분석에 적용하였다.

[표 4-9]자기조절에 대하여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요인	항 목	요인 적재량	아이겐값 (분산률%)	Cronbach's α
자기 조절	나는 지금의 교육은 나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798	5.176 (64.696%)	.921
	나는 배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다.	.816		
	나는 노력한 만큼의 좋은 결과를 얻는다.	.825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학습능력이 매우 우수하다.	.742		
	나는 아무리 어려운 과제라도 노력하면 해 낼 수 있다.	.801		
	나는 지금 배우는 내용이 흥미롭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한다.	.847		
	나는 많은 노력이 필요해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학습내용을 좋아한다.	.833		
	나는 지금 배우는 내용이 살아가는데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767		

KMO = .914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chi^2 = 1454.978$ df= 28 Sig. = .000

요인분석의 적용 가능성 검정결과, 표본적합도의 KMO측도는 .914,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는 1454.978, 유의수준은 .000으로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도의도의 영향요인에 대하여 요인추출에 대한 결과 8개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분산의 설명력은 64.696%로 나타났다. 요인의 신뢰도 분석한 결과 .921로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4.4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상관관계는 변수와 변수의 관계를 두개 또는 그 이상의 변수사이에 하나의 변수가 변동함에 따라서 다른 변수들이 변동하게 되는 변동에 따른 연관성의 빈도와 변동크기의 정도와 방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하나의 변수가 다른 변수들과 관련성 여부의 파악을 위하여 관련성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다. x축, y축이 있다면 x축의 변화량에 따라 y축도 변화하는 관계를 의미하고, x축이 증가할 때마다 y축은 감소하는 경우에 음(-)의 상관관계와 어느 쪽도 관계를 보이지 않으면 무상관이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 변수 간 사이의 관계가 어느 정도 밀접한지를 측정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상관계수는 0.2 이하면 상관관계가 없거나 무시해도 좋은 수준의 상관관계이고, 0.4 정도이면 약한 상관관계로, 0.6 이상이면 강한 상관관계로 볼 수 있다(채서일, 2004). 각각 요인들 사이에 관계여부에 대한 측정을 위하여 Pearson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를 정리한 표는[표 4-10]과 같다.

분석결과 기본심리욕구의 자율성과 유능성(.623**)이며, 유능성과 자기조절은(.623**), 관계성과 자기조절은(.730**), 진로성숙과 자기조절은 (.766**), 행도의도와 자기조절은(.716**)로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요인들의 상관관계에서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진로성숙과 자기조절이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0] 상관관계분석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진로성숙	행동의도	자기조절
자율성	1					
유능성	.623**	1				
관계성	.576**	.583**	1			
진로성숙	.498**	.558**	.672**	1		
행동의도	.432**	.420**	.676**	.603**	1	
자기조절	.529**	.623**	.730**	.766**	.716**	1

** . 상관이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쪽).

4.5 가설 검증

4.5.1 기본심리욕구와 진로성숙의 가설검증

기본심리욕구와 진로성숙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게 되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는 결과표는[표 4-11]과 같다. 회귀분석 결과 다중공선성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창요인(VIF: Variance Inflation Factor)을 산출하였다. 산출된 공차나 분산팽창요인(VIF)이 1에 근접하면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고, 분산팽창요인(VIF)의 경우 값이 10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1]기본심리욕구와 진로성숙의 관계

독립변수	비표준계수		표준계수	t	유의수준	공선성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	VIF
(상수)	.948	.169		5.616	.000		
자율성	.067	.055	.071	1.216	.225	.544	1.838
유능성	.227	.060	.222	3.810	.000***	.538	1.860
관계성	.434	.048	.502	8.984	.000***	.587	1.704
R=.705a R ² =.496 Adj R ² =.491 F=90.369 p=.000							

a.종속변수: 진로성숙

*p<0.05, **p<0.01, ***p<0.001

본 연구에서 공차한계는 .538-.587이며 분산팽창요인(VIF)은 1.704 - 1.860으로 모두 10 이하로 나타났으며, 각 변인들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잔차 사이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하여 Durbin-Watson 검정 결과에서 2에 근접할수록 잔차항 사이의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Durbin-Watson계수는 1.921로 나타나 잔차항 간의 상관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회귀식의 설명력인 R²값은 .496로 분석되어 49.6% (F=90.369***)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기본심리욕구 중 관계성(.502, p<.001), 유능성(.222, p<.001)순으로 진로성숙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으나 자율성(.071, p>.05)은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본 연구에서 자율성과 유능성, 관계

성에 진로성숙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으나 자율성은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고 있지 않아 기각되었으며 유능성과 관계성은 채택되었으며 가설 1은 부분 채택 되었다.

4.5.2 기본심리욕구와 행동의도의 가설검증

기본심리욕구와 행동의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게 되었다. 연구결과에 따르는 결과표는[표 4-12]과 같다.

[표 4-12]기본심리욕구와 행동의도의 관계

독립변수	비표준계수		표준계수	t	유의수준	공선성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	VIF
(상수)	1.331	.179		7.417	.000		
자율성	.056	.059	.058	.961	.338	.544	1.838
유능성	.016	.063	.015	.249	.803	.538	1.860
관계성	.563	.051	.634	10.973	.000***	.587	1.704

R=.679^a R²=.460 Adj R²=.455 F=78.217 p=.000

a.종속변수: 행동의도

*p<0.05, **p<0.01, ***p<0.001

공차한계는 .538-.587이며 분산팽창요인(VIF)은 1.704 - 1.860으로 모두 10 이하로 나타났으며, 각 변인들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

된다. 잔차 사이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한 Durbin-Watson 검정 결과에서 2에 근접할수록 잔차항 사이의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며 본 연구에서는 Durbin-Watson계수는 1.977로 나타나 잔차항 사이의 상관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회귀식의 설명력인 R^2 값은 .460로 분석되어 46.0% ($F=78.217^{***}$)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기본심리욕구 중 관계성(.634, $p<.001$)은 진로성숙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으나 자율성(.058, $p>.05$)과, 유능성(.015, $p>.05$)은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본 연구에서 자율성과 유능성, 관계성에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관계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으나 자율성과 유능성은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고 있지 않아 기각되었고 관계성은 채택되었으며 가설 2는 부분 채택 되었다.

4.5.3 진로성숙과 행동의도의 가설검증

진로성숙과 행동의도의 영향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게 되었다. 연구결과에 따르는 결과표는[표 4-13] 과 같다.

[표 4-13] 진로성숙과 행동의도의 관계

독립변수	비표준계수		표준계수	t	유의수준	공선성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	VIF
(상수)	1.463	.177		8.281	.000		
진로성숙	.619	.049	.603	12.575	.000***	1.000	1.000
R=.603 ^a R ² =.363 Adj R ² =.361 F=158.141 p=.000							

a. 종속변수: 행동의도

* $p<0.05$, ** $p<0.01$, *** $p<0.001$

회귀분석 결과 회귀식의 설명력인 R^2 값은 .363로 분석되어 36.3% ($F=158.141^{***}$)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진로성숙(.603, $p<.001$)은 행동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고 있어 연구가설은 채택되어 가설 3은 채택 되었다.

4.5.4 기본심리욕구와 진로성숙 간의 자기조절의 조절효과검증

4.5.4.1 기본심리욕구의 자율성과 진로성숙 간의 자기조절의 조절효과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이전,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곱으로 형성하는 상호작용 항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다중공선성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독립변인 및 조절변인을 평균 중심화(Mean Centering)를 실시하였다. 잔차항에 대하여 자기상관을 알아보기 위하여 Durbin-Watson을 검정한 결과 1.921로 나타나 잔차항에 자기상관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조절효과를 검증한[표 4-14] 는 기본심리욕구 중 자율성과 진로성숙의 관계에서 자기조절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표이다.

조절효과를 검정한 결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었으며 분석에서 독립변수인 기본심리욕구의 자율성과 종속변수인 진로성숙의 상호작용 항이 투입된 1단계의 설명력은 24.8%로 결정계수의 증가분($\text{Adj } R^2=.245$)은 24.5%이며 $p<.001$ 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F=91.210$).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 자율성과 종속변수인 진로성숙에 조절변수 자기조절이 추가됨으로 설명력은 59.9%이며 결정계수에 대한 증가분($\text{Adj } R^2=.596$)은 59.6%이며 $p=.000$ 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F=206.094$).

3단계에서는 추가적으로 투입된 자율성과 자기조절의 상호작용변수(자율성 $\times$ 자기조절)가 추가적으로 투입되어 60.4%의 설명력과 조정된 R^2 값($\text{Adj } R^2=.600$)은 60.6%이며 $p=.065$ 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F=139.756$). 상호작용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 자기조절은 기본심리욕구의 자율성과 진로성숙 간의 관계를 조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 3-1은 기각되었다.

[표 4-14] 기본심리욕구의 자율성과 진로성숙 간의 자기조절의 조절효과

모형	변 수	분 석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표준오차	Beta		
1		(상수)	1.818	.182		10.002	.000
		자율성	.473	.049	.498	9.550	.000***
	F : 91.210(.000***)						
2		(상수)	.330	.164		2.012	.045*
		자율성	.121	.043	.128	2.847	.005**
		자기조절	.753	.048	.699	15.547	.000***
	F : 206.094(.000***)						
3		(상수)	-.565	.509		-1.109	.268
		자율성	.413	.163	.435	2.536	.012*
		자기조절	.997	.140	.925	7.105	.000***
		자율자기조절	-.078	.042	-.473	-1.854	.065
	F : 139.756(.000***)						
R : ① .498 ② .774 ③ .777							
R²: ① .248 ② .599 ③ .604							
Adj R²: ① .245 ② .596 ③ .600							
* : p<0.05 ** : p<0.01 *** : p<0.001							

4.5.4.2 기본심리욕구의 유능성과 진로성숙 간의 자기조절의 조절효과

잔차항에 대하여 자기상관을 확인하기 위하여 Durbin-Watson을 검정한 결과 1.977로 나타나 잔차항에 자기상관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조절효과에 대한[표 4-15] 는 기본심리욕구 중 유능성과 진로성숙의 관계에서 자기조절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표이다. 조절효과를 검정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었으며 분석에서 독립변수인 기본심리욕구의 유능성과 종속변수인 진로성숙의 상호작용 항이 투입된 1단계의 설명력은 31.2%로 결정계수 증가분(Adj R²=.309)은 30.9%이며 p<.001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F=125.510). 2단계

에서는 독립변수 자율성과 종속변수인 진로성숙에 조절변수 자기조절이 추가됨으로 설명력은 59.8%이며 결정계수 증가분(Adj R²=.595는 59.5%이며 p= .000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F=205.225), 3단계에서는 추가적으로 투입된 자율성과 자기조절의 상호작용변수(유능성×자기조절)가 추가적으로 투입되어 60.2%의 설명력과 조정된 R²값(Adj R²=.598)은 59.8%이며 p<.05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F=138.678). 상호작용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 자기조절은 기본심리욕구의 유능성과 진로성숙 간의 관계를 조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 3-2은 기각되었다.

[표 4-15] 기본심리욕구의 유능성과 진로성숙 간의 자기조절의 조절효과

모형	분 석 변 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표준오차	Beta		
1	(상수)	1.646	.171		9.638	.000
	유능성	.570	.051	.558	11.203	.000***
	F : 125.510(.000***)					
2	(상수)	.381	.159		2.395	.017
	유능성	.135	.050	.133	2.718	.007**
	자기조절	.737	.053	.684	14.014	.000***
	F : 205.225(.000***)					
3	(상수)	-.307	.437		-.702	.483
	유능성	.383	.155	.375	2.470	.014*
	자기조절	.942	.133	.874	7.105	.000***
	유능자기조절	-.071	.042	-.396	-1.686	.093
	F : 138.678(.000***)					
R : ① .558 ② .773 ③ .776						
R²: ① .312 ② .598 ③ .602						
Adj R²: ① .309 ② .595 ③ .598						

* : p<0.05 ** : p<0.01 *** : p<0.001

4.5.4.3 기본심리욕구의 관계성과 진로성숙 간의 자기조절의 조절효과

잔차항에 대하여 자기상관을 확인하기 위해 Durbin-Watson을 검정한 결과 1.977로 나타나 잔차항에 자기상관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한[표 4-16] 는 기본심리욕구 중 관계성과 진로성숙의 관계에서 자기조절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표이다.

[표 4-16] 기본심리욕구의 관계성과 진로성숙 간의 자기조절의 조절효과

모형 변수	분 석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표준오차	Beta		
1	(상수)	1.397	.144		9.701	.000
	관계성	.581	.038	.672	15.098	.000***
	F : 227.941(.000***)					
2	(상수)	.432	.150		2.871	.004
	관계성	.208	.047	.241	4.409	.000***
	자기조절	.636	.059	.590	10.797	.000***
	F : 219.820(.000***)					
3	(상수)	-.278	.362		-.767	.444
	관계성	.440	.117	.509	3.748	.000***
	자기조절	.856	.118	.795	7.268	.000***
	관계자기조절	-.068	.032	-.447	-2.153	.032*
	F : 150.021(.000***)					
R : ① .672 ② .784 ③ .788						
R²: ① .451 ② .614 ③ .621						
Adj R²: ① .449 ② .612 ③ .617						

* : $p < 0.05$ ** : $p < 0.01$ *** : $p < 0.001$

조절효과를 검정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었으며 분석에서 독립변수인 기본심리욕구의 관계성과 종속변수인 진로성숙의 상호작용 항이 투입된 1단계의 설명력은 45.1%로 결정계수 증가분(Adj R²=.449은 44.9%이

며 $p < .001$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F = 227.941$).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 관계성과 종속변수인 진로성숙에 조절변수 자기조절이 추가됨으로 설명력은 61.4%이며 결정계수 증가분($\text{Adj } R^2 = .612$)은 61.2%이며 $p < .001$ 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F = 219.820$), 3단계에서는 추가적으로 투입된 관계성과 자기조절의 상호작용변수(관계성 $\times$ 자기조절)가 추가적으로 투입되어 62.1%의 설명력과 조정된 R^2 값($\text{Adj } R^2 = .617$)은 61.7%이며 $p < .05$ 로 유의미한 것을 알 수 있다. ($F = 150.021$). 상호작용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자기조절은 기본심리욕구의 관계성과 진로성숙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 3-3은 채택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내용을 연구가설 검정결과에 따른[표 4-17]로 정리하였다.

[표 4-17] 연구가설의 검증결과

구분	가설	채택 여부
가설1	기본심리욕구는 진로성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 채택
가설1-1	기본심리욕구의 자율성은 진로성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1-2	기본심리욕구의 유능성은 진로성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1-3	기본심리욕구의 관계성은 진로성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2	기본심리욕구는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 채택
가설2-1	기본심리욕구의 자율성은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2-2	기본심리욕구의 유능성은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2-3	기본심리욕구의 관계성은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3	진로성숙은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4	자기조절은 기본심리욕구와 진로성숙에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부분 채택
가설4-1	자기조절은 자율성과 진로성숙에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기각
가설4-2	자기조절은 유능성과 진로성숙에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기각
가설4-3	자기조절은 관계성과 진로성숙에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채택

V. 결 론

5.1 연구의 결과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직업전문학교의 조리교육생이 지각한 기본심리욕구의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이 진로성숙, 행동의도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기본심리욕구의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이 진로소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조절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목적으로 직업전문학교 조리교육생을 대상으로 320부의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하여 281부의 최종 자료를 SPSS Statistics 22.0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된 주요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전문학교 조리교육생이 인지하는 기본심리욕구의 영향요인의 요인 추출결과 3개의 요인을 도출하여 그 특성에 맞는 각각의 요인명은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으로 명명하고 선행요인들로부터 도출된 12문항, 진로성숙에 대한 요인과 요인에 따른 변수들 사이의 요인분석과 요인신뢰성 검토를 하기 위하여 실시하여 요인분석은 선행연구에서 도출되어진 5개의 문항을 요인의 분석에 적용하였다. 또한 행동의도에 대하여 요인과 요인 사이의 분석과 신뢰성의 검토를 위하여 실시하였으며 본 결과에서 요인의 분석은 선행연구에서 도출되어진 5개의 문항으로 요인에 대한 분석에 적용하였다. 자기조절에 대하여 요인과 요인들 사이의 요인분석과 신뢰성에 대하여 검토하기 위하여 실시한 요인분석은 선행연구에서 도출되어진 8개의 문항으로 요인 분석에 적용하여 연구를 실시하여 연구하였다.

둘째, 회귀분석 결과 기본심리욕구와 진로성숙은 회귀식의 설명력인 R^2 값은 .496로 나타났고, 회귀모형은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90.369^{***}$). 기본심리욕구 중 관계성, 유능성순으로 진로성숙에 대하여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율성은 유의한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가설과 다르게 가설 1은 부분 채택 되었다.

셋째, 회귀분석 결과 기본심리욕구와 행동 의도는 회귀식의 설명력인 R^2

값은 .460으로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78.217^{***}$) 관계성이 높을수록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어 채택되었으나 자율성과 유능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기각되었다. 따라서 연구가설 2는 부분채택 되었다.

넷째, 회귀분석 결과 진로성숙과 행동 의도는 회귀식의 설명력인 R^2 값은 .363으로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158.141^{***}$) 진로성숙이 높아질수록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어 채택되었다.

다섯째, 조절효과 검정결과, 조절변수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에서 상호작용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 자기조절은 기본심리욕구의 관계성과 진로성숙 사이의 관계에서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채택되었으나 부의 영향관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기본심리욕구의 자율성, 유능성과 진로성숙에서 자기조절은 관계를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기각되었으며 본연구의 가설과 다르게 부분채택 되었다.

본 연구는 직업학교 조리교육생 인지하는 기본심리욕구가 진로성숙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적인 관계와 자기조절이 기본심리욕구와 진로성숙 사이의 조절역할에 대한 연구로서 실증적 분석을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연구에 대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본 연구는 서울·경기지역에 소재한 직업전문학교 조리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생들이 인지하는 기본심리욕구가 진로성숙 및 행동의도에 미치고 있는 영향관계에 대한 연구로 조리교육생들의 욕구 만족을 높이고 진로성숙을 통하여 취업률을 높이고 재수강등의 행동의도를 높이기 위하여 전략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하는 것에 의의를 가진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분석되어진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다음에서와 같이 시사점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직업학교에서는 수강종료 후 취업과 관련된 전담직원을 채용하고 있으며 교육생들의 성향이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시점에서 조리교육생의 기본심리욕구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이 진로성숙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연구자의 가설과는 차이를 보이며 유능성과 관계성만이 진로성숙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이 행동의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연구자의 가설과 차이를 보이며 관계성만이 행동의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서로 다른 과거 이력

을 가지고 조리교육을 접하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이 진행되다보니 강사나 기관에 의존하는 성향이 강하고 경험에 부족으로 자신감이 결여되어 나타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기관과 강사, 직원 등은 조리교육의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위한 기초지식을 조리교육생들에게 고취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조리교육의 경험을 통한 이해력 향상과 자신감을 부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진로성숙도가 높을수록 행동의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직업전문학교의 교육 후 진로를 결정하고 취업으로 연결되어진다는 신념이 높아질수록 다른 프로그램을 재수강하던지 추천할 수 있으므로 조리교육생들이 희망하고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과정개발에 기관은 노력하여야 함을 내시사하고 있다. 셋째, 자기조절이 기본심리욕구와 진로성숙에 조절역할 관계에 대한 규명을 위한 다중회기분석을 실시 결과 직업전문학교 조리교육생이 인지하는 기본심리욕구 중 자율성, 유능성에는 조절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 관계성만이 조절역할을 하고 있으나 부의 영향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조리교육을 정부지원을 받아 교육을 받는 직업학교의 조리교육생들은 그동안의 경험과 다른 새로운 기능을 익히면서 그에 따른 두려움과 적성, 앞으로의 진로에 대하여 많이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나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스스로 흥미롭게 열심히 하는 등 본인에게 중요하다고 느끼고 생각하는 부분이 타인과의 공감대형성과 친밀감, 도움을 주고받는 부분이 부의 영향관계를 보이는 것이 조리교육의 전제조건에 따른 것으로 조리학습 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차이로 인하여 어떤 교육생에게는 매우 쉬운 부분이 다른 교육생에게는 매우 어려운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발생하는 경우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관과 강사들이 제시해주는 방향에 대한 확신을 필요로 할 것이며 졸업생들의 우수사례 등과 같은 기회를 접하고 같이 교육 받는 동기들의 관계에서 자신감을 충족시키고 자기신감을 가지고 재수강과 추천, 긍정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직업전문학교의 운영진들은 조리교육생들에게 현장을 간접경험 할 수 있는 다양한 세미나와 현장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5.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후속 연구방향

이상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기본심리욕구의 자율성과 유능성, 관계성이 진로성숙과 행동의도에 어떻게 관련되는지 체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자기조절이 기본심리욕구의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에서 관계성만이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진로성숙을 조절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밝혔으며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이 직업전문학교의 조리교육생으로 서울과 경기도로 지역적으로 제한되어 있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넓게 중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본 연구결과를 재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이는 응답자가 질문에 성실하게 답하지 않 않을 가능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얻기 위하여 면접 등 새로운 방법의 자료 수집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직업학교 조리교육생이 지각하는 기본심리욕구와 진로성숙에 자기조절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나, 자율성과 유능성은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조절이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교육생들의 인지적 변인, 정서적 변인, 성격 변인 등의 다양한 변인들을 포함시켜 진로성숙에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강승희. (2010). “표현예술치료프로그램이 중년여성들의 자아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정임. (2013). “고등학생이 지각한 가족관계, 심리적 독립, 자아탄력성 및 진로태도성숙 간의 구조관계분석”.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곽미정, 김태동, 김형모(2014). 중학생의 자기효능감을 적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사회과학연구』, 25(3), 151-174.
- 구본수, 신진호, 김차용. (2014). 국내 스크린 골프 브랜드 자산이 고객 만족도 및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5(2), 1099-1113.
- 권은경. (2013). “사회인지진로이론에 근거한 대학생 진로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은숙, (2015). “Holland 진로성격 유형에 따른 미용전공 대학생의 가치관과 전공만족도 및 진로성숙도 분석”.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해익. (2011). 온라인 쇼핑사이트 채널만족 및 지속사용의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세무회계연구』, 0(30), 167-189.
- 권혁성. (2014). “프리미엄 슈퍼마켓의 시각적 상품 전략이 고객만족과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광래. (2017). “직업전문학교 청소년의 가정 내 사회자본이 자아존중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교현. (2006). 중독과 자기조절: 인지신경과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1), 63-105.
- 김남희, 김종백. (2011). 기본심리욕구와 수업참여를 매개로 한 학생-교사에

- 착관계와 학업성취도의 관계. 『教育心理研究』, 25(4), 763-789.
- 김누리, 안도희. (2016). 청소년의 학습몰입 예측 요인 탐색. 『청소년학연구』, 23(11), 159-184.
- 김동수, 손병모. (2011). 외식산업 품질관리 요인이 소비자 만족 및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저널』, 25(1), 143-164.
- 김동준. (2012). “자기조절학습과 학업성취의 중단 관계 연구 : 자기회귀교차 지연모형 및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하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림, 유혜림, 황은희, 김선용. (2019). 잠재전이분석을 활용한 대학생 진로성숙도의 발달 유형과 영향 요인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20(1), 173-197.
- 김미정. (2019). “가족지지 및 교수지지와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 : 자기결정성동기와 자기조절학습능력 매개효과”.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봉환, 황매향, 선혜연, 이동혁, 임은미, 김계현. (2013). 『심층직업상담 : 사례적용접근』, 서울: 학지사.
- 김서영, 백지숙. (2009). 대안 고등학교 학생과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진로성숙도의 비교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7(4), 69-75.
- 김선경. (2017). “청소년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청소년활동역량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성수, 윤미선. (2013). SDT의 목표내용이론에 기반 한 청소년용 생애목표 척도 개발 및 타당화. 『教育學研究』, 51(4), 87-117.
- 김성태. (2013). 항공사의 지각된 가격 및 서비스품질과 고객만족, 신뢰, 이미지의 행동의도 영향관계 연구. 『관광경영연구』, 17(3), 39-62.
- 김아영. (2010). 자기결정성이론과 현장 적용 연구. 『教育心理研究』, 24(3), 583-609.
- 윤승희, 천성문, 김아영. (2018) 희망증진 프로그램이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중학생의 자아 탄력성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교육혁신연구』,

28(3). 299-323.

김영신. (2015). “유아 자기조절력 측정도구 개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예영. (2013). “윤리적 외식상품에 대한 소비가치가 태도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윤선. (2018). “특성화고 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 기본심리욕구만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은영. (2012). “잠재적 위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해결중심 단기개입의 성과 : 자아효능감 및 대인관계 태도 개선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은영, 성소연, 최명구. (2014). 자기결정 동기 유형에 따른 부모의 자율성지시 환경, 기본심리욕구, 자기결정 동기, 몰입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청소년학연구』, 21(5), 1-27.

김은주, 김지현. (2010). 한국 대학생 진로준비유형검사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3), 733-752.

김종운, 김말선. (2012). 다중지능이론에 기초한 진로 집단상담이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유형과 진로자기 효능감 및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진로교육연구』, 25(3), 201-227.

김지연. (2013). “평생교육기관 학습자의 참여동기와 참여지속의도 관계에서 관계마케팅의 조절효과”.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지훈. (2011). “완벽주의 성향과 자기효능감이 대인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진성. (2017). “유아의 또래유능성 관련 변인 연구 : 어머니의 대인관계 유능성 및 자아수용, 유아교사의 전문성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현심. (2009). “자기조절학습의 학년 간 차이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현정. (2010). “전문계 고등학교 조리전공 학생들의 전공만족도가 진로선택

- 에 미치는 영향”.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홍진. (2018). “조리교육기관의 교육환경이 수업몰입과 재수강의도에 미치는 영향 :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로”. 한성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정. (2015). 교사-학생 관계, 성취목표지향성,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12), 155-178.
- 금민지. (2015). “마음 챙김이 사회초년생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 자율성과 자율적 일동기를 매개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금지현. (2012). 실과 가정생활 영역을 활용한 융합인재교육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실과에 대한 태도와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교육학회지』, 24(1), 61-71.
- 남은우. (2011). “블로그 특성이 관계질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노원희, 안승호, 양링링, 송영옥. (2012). 중국 소비자의 소비가치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중사회과학연구』, 10(2), 179-206.
- 류관열, 임우용, 최성열. (2010). 중·고등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타인기대와 학업성취도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전략의 효과. 『教育心理研究』, 24(3), 661-685.
- 류명구. (2013). 청소년 문화존 참여만족도가 청소년의 사회성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조절 능력의 매개효과. 『청소년행동연구』, 18, 113-135.
- 류형선, 이명임. (2013). 전문대학생의 창의적 인성과 희망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창의력교육연구』, 13(1), 1-17.
- 맹희주. (2014).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학생들의 직업가치관과 진로성숙도 비교 분석. 『교과교육학연구』, 18(3), 579-599.
- 문은식. (2007). “부모의 학습지원행동과 초등학생의 자기조절학습의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은식, 강승호. (2008). 고등학생의 심리적 안녕에 관련되는 사회·동기적 변

- 인들의 구조적 분석. 『教育心理研究』, 22(1), 1-15.
- 문정훈. (2010). “RME를 활용한 직업전문학교 미분 지도방안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중운. (2000). “직업전문학교 프로그램 사례 연구 :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태형. (2011). 자기결정성 동기 및 자기효능감에 따른 초등 과학, 수학 및 정보 영재아동의 판별분석. 『아동교육』, 20(1), 33-44.
- 박경숙, 오인수. (2016). 자기결정성동기 및 자기효능감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영어교과흥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과교육학연구』, 20(4), 295-305.
- 박선영. (2018). “여자 대학생의 물질주의 가치추구와 숙달목표의 변화양상 : 기본심리욕구만족 수준 및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선영. (2013). “남자 중학생의 정서조절방략 및 자기조절 능력과 행동문제의 관계 : 자기보고와 교사보고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소희. (2011). 진로태도성숙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 자기효능감, 직업 가치, 주도성을 중심으로. 『직업능력개발연구』, 14(3), 307-331.
- 박신영, 김종임. (2017). 대학생의 직업가치 및 사회적지지와 진로결정수준 관계에서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0), 507-533.
- 박영진. (2013). “기업 페이스북 팬페이지 지속적 이용의도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원숙. (2018). “민간조리직업훈련기관의 교육환경이 훈련생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NCS 교육인증 기관 중심으로”. 위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재은, 이정애, 이지연, 정익중. (2011). 청소년기 애착이 진로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빈곤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3(3), 93-116.

- 박재찬. (2006). “초등 수학과 문제중심학습에서 학습자의 자기조절학습능력과 사전 학업성취도가 문제해결력과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현. (2016). “가격할인과 보너스팩 간의 품질 및 구매의도의 차이”. 충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민정. (2019).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 진로개발역량, 진로적응성 간의 구조적 관계”.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혜영. (2019). “유아교사의 자율성지지와 놀이교수효능감이 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우암, 김홍범. (2015). 연구논문(研究論文) : 고객의 모(母)브랜드 인지가 호텔의 사업부확장브랜드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학연구』, 39(1), 95-112.
- 백경미. (2013). “이벤트 방문객의 경험적 가치가 감정반응과 장소애착 및 개최 태도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백정빈. (2009). “모애착과 초등학생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 검증”.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혜영. (2019). “다문화가정 아동과 비다문화가정 아동의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과 주관적 안녕감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백희숙. (2012). “고등학생의 기본심리욕구와 학업적 성취목표지향성, 학교적응 간의 관계.”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소용준, 박준성. (2016). 대학생의 적응에 따른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 취업불안의 매개효과 검증. 『취업진로연구』, 6(4), 23-44.
- 손승아, 안경숙, 김승경. (2006). 청소년의 자기조절능력과 심리환경적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7(1), 127-148.
- 송민경. (2011). 청소년기 진로성숙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8(4), 329-347.
- 송혜영. (2007). “유아의 정서적·행동적 자기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

- 인”.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석은주.(2013).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직무교육이 직무가치 및 직업만족에 미치는 영향 : K 항공사를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관광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보라. (2013). “고등학생의 자기제시기대, 사후반추사고 및 대인불안의 관계”.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성현. (2019). “우리나라 대학생의 진로성숙도 변화궤적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승원. (2012). 성인영어학습자의 영어교사효능감 관련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Andragogy Today :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15(2), 105-126.
- 신지영. (2000). “부모와의 갈등적 독립 및 가족응집력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혜린. (2017). “초등학교 고학년이 지각하는 부모애착과 사회성의 관계 :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혜숙, 황경진. (2013). 청소년의 자기조절능력과 긍정적 사고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교육혁신연구』, 23(1), 1-19.
- 안미경. (2009). “초등과학에서 자기조절학습 수업모형의 개발 및 적용”.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세희. (2013). “기능적 일치성과 자아일치성이 고객가치와 소비감정, 행동의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 커피전문점 이용자를 대상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명희, (2000). “自己調節學習의 模型 探索과 妥當化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명희, 권재기. (2013). 청소년들의 학업정서 지각 유형과 자기조절학습과의 관련성. 『한국청소년연구』, 24(4), 203-229.
- 양명희, 이경아. (2012). 자기조절학습과 학업성취도의 관련성 : 변화추이 및 인과적 방향성 검토. 『교육과학연구』, 43(2), 175-195.
- 양영순. (2014). “플로우(flow)경험에 따른 소셜 미디어의 상호 작용성이 지속

- 적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 목적지 선택 전, 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운의. (2015). “호텔 뷔페레스토랑의 서비스품질 인식과 브랜드이미지 및 행동의도 연구”.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엄진옥, (2018). “액션러닝을 활용한 음악극 수업이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상철. (2015). “지각된 부모와 교사의 자율성 지지, 기본심리욕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간의 구조적 관계: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의 비교”.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옥선형. (2016). “대학생의 진로성숙도 향상을 위한 콜라주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평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용석홍. (2016). “문화관광축제의 체험경제이론(4Es)과 행동의도와 의 영향관계 연구 : Pine과 Gilmore의 체험경제이론을 중심으로”. 안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민형. (2017). “외식산업의 다층적 서비스품질이 소비자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 외·내향의 성격유형 조절효과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혜숙. (2015). “농촌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갈등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지현. (2017). 축제 체험이 즐거움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제천 박달가요제 관람객을 중심으로. 『관광경영연구』, 79, 231-247.
- 이경주. (2019). “NCS(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의 조리교육 훈련생의 교육만족도에 관한 연구 :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학. (1997).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자아존중감, 직업가치, 내외통제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동숙. (2019). “조리교육기관의 교육서비스품질이 교육만족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 물리적 교육환경을 조절효과로”.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동혁, 신운정, 이은설, 이효남, 홍셋별, 황매향. (2017). 『청소년 진로특성 진단 및 활용』, 서울:사회평론.
- 이명진. (2011). 자기조절 연구의 현황과 과제. 『教育問題研究』, 0(3), 161-193.
- 이명희, 김아영. (2008). 자기결정성이론에 근거한 한국형 기본 심리 욕구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4), 157-174.
- 이민희. (2007). “학습장면에서 자기결정론의 동기화 경로 모형 검증”. 경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민희, 정태연. (2008). 자기결정이론을 토대로 한 학습동기 경로 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4(1), 77-99.
- 이새롬. (2011). “미용학원 훈련생의 근무형태에 따른 직무만족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소영. (2015). “학습동기와 자율성이 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의 직무창의성과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인과구조적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송이. (2014). 대학생의 자아정체감이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및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6(1), 109-128.
- 이수경. (2015). “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의 자기결정성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몰입의 매개효과 검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진. (2011). 지각된 자율성, 관계성, 유능감과 대학생에서의 학업성취, 정서적 적응과 주관적 안녕감과 관계. 『교육심리연구』, 25(4), 903-926.
- 이신숙. (2013). “중학생의 회복탄력성이 학교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영남. (2019). “고등학생의 진로에 대한 인식과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연구”.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영진. (2018). “자율성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책과 자기노출의 다중 매개효과”.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주. (2007).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유형과 자기효능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유리, 김남중. (2013). 여자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 대학생활적응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0(8), 97-120.
- 이운순. (2017). “교사지지와 가정의 심리적 환경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자기조절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곤, 이규상. (2018). 테마관광의 환경단서가 지역이미지와 방문만족 및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관광경영연구』, 84, 575-605.
- 이정란. (2003). “유아의 자기조절 구성 요인 및 관련 변인에 대한 구조 분석”. 덕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정수, 이상인, 이동진. (2018). 축구관중의 소비가치, 태도, 소비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27(3), 453-465.
- 이종윤. (2004). “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의 요구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종원. (2014).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사회적지지, 진로동기,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지현. (2000). 디어든의 자율성 교육론. 『교육철학연구』, 24, 73-91.
- 이지훈, 구동모, 이미정, 임성혁. (2011). 온,오프라인 매장 쇼핑고객의 지배력, 환기, 즐거움 등 감정요인간의 인과관계와 이들 요인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 분석. 『마케팅관리연구』, 16(1), 89-123.

- 이채리. (2017).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진로적응성의 관계 :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진로결정 내재적 동기의 매개효과 검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미, 정제영. (2017).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청소년학연구』, 24(2), 117-139.
- 이한주. (2018). “코칭리더십과 정서적 조직몰입, 이직의도의 관계에 있어서 기본심리욕구와 직무만족의 매개효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현주. (2017).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 학년별, 계열별 비교”.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성애, 이은주. (2017). 초등학생의 진로성숙도 발달양상에 따른 잠재계층 분류 및 영향요인 검증. 『초등교육연구』, 30(1), 121-145.
- 임이랑, 오인수, 김연희. (2014). 초등학교 학습부진 학생의 자기조절학습 구성요인 간 관계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5(2), 249-272.
- 임철환. (2011). “호텔 레스토랑의 서비스 회복 공정성 지각과 고객감정, 고객만족 및 행동의도에 관한 영향 연구: 불평자와 비불평자 비교를 통한 서비스 회복 패러독스 검증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현정, 김난옥. (2019). 대학시기 경험이 진로성숙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한국교육문제연구』, 37(1), 115-137.
- 오상철. (2015). “지각된 부모와 교사의 자율성 지지, 기본심리욕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간의 구조적 관계 :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의 비교”.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혜진. (2012). “유아의 사회적 합의 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구성 및 적용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인효. (2011).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만족과 정서조절양식이 우울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세영, 이미지, 이재호, 조영희, 김은삼, 김경선, 김동일. (2015). 장애청소년 진로성숙도 검사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4(1), 491-515.

- 장진이, 곽노의. (2016). 청소년의 우울과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정서조절, 거부민감성의 구조적 관계. 『청소년복지연구』, 18(1), 285-304.
- 장현옥. (2009). “직업전문학교의 전자CAD교육과 기업체의 수요조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경옥. (2006). “성취목표, 학업동기, 학습전략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 초등학생의 국어·수학 성적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예림. (2017). “고등학생의 기본심리욕구 만족과 셀프리더십의 관계”.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태유, 박노현. (2010). 외식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 브랜드 이미지가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 긍정적 감정과 관계품질의 매개적 역할. 『商品學研究』, 28(2), 17-29.
- 정미경. (2008). 자기조절학습 구조에 대한 발달적 경향 탐색. 『영재와 영재교육』, 7(2), 21-38.
- 정미선. (2007). “자기조절학습 프로그램이 과학탐구능력, 학업성취도, 과학적 태도 및 탐구동기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연숙. (2015). “초등 수학학습에서 자기조절학습에 작용하는 의지통제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주원. (2016). 고등학생의 진로체험 유형과 부모지지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8(4), 139-158.
- 조명희, 이혜연, 이현우. (2013). 고교생의 진로발달, 학교생활만족도, 학업성취도의 종단적 변화와 구조적 관계. 『진로교육연구』, 26(2), 91-112.
- 조미경. (2008). “자기조절 학습전략 프로그램이 미성취 영재아의 자기조절 학습능력과 학업 성취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용비. (2019). “재한 중국유학생의 부모애착, 기본심리욕구, 진로정체감, 우울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준희. (2011). “조직활성화 교육이 사원의 기본적 욕구 및 조직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 S사 사례 중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진호. (2018).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에 대한 신뢰, 고객만족, 지속적 이용 의도 간의 관계 분석 : 신뢰와 고객만족의 다중매개효과와 사용자경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산업혁신연구』, 34(1), 99-126.
- 조태영, 서태양. (2009). 안동 하회마을 문화관광체험이 관광만족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9(7), 361-370.
- 조현미. (2019). “자기조절 학습행동 코칭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기조절과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혜경. (2001). “PBL(Problem-Based Learning) 활용 수업에서 자기규제학습 능력에 따른 성취도, PBL 학습요소별 인식의 차이 및 성취도와 인식차의 관계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혜연. (2012).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만족,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신옥. (2016). 항공사 웹사이트의 e-서비스품질이 e-브랜드 이미지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경영연구』, 73, 459-476.
- 주윤희, 조희영. (2015). 친환경 농산물 전문 인터넷쇼핑몰의 사이트 이미지와 서비스 품질이 신뢰, 고객만족 및 지속적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창조와 혁신』, 8(3), 117-148.
- 주효정. (2013). “직업전문학교 미용전공생의 자기효능감에 따른 수업만족도와 진로결정 효능감”.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미석, 손유비, 김도협. (2012). 『주요국의 진로교육정책 :교육과 고용구조의 연계를 중심으로』, 서울: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차정원. (2014). “청소년의 가족환경 및 또래환경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선미. (2016). “전문대 졸업자의 학사학위 취득경로별 임금 및 직업위세 효과”.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수영. (2012). “초등미술교과에서 자기조절학습이 미술자아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주연. (2015). “직장인의 일의 의미가 기본심리욕구를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연희, 이희수. (2013). 패밀리레스토랑 브랜드이미지, 서비스품질의 지각된 가치, 고객만족, 행동의도간의 영향관계 연구. 『觀光研究』, 28(3), 169-187.
- 최해주. (2007). “아동의 자기조절능력과 관련변인간의 경로모형분석: 아동의 개인내적 변인과 어머니 변인을 중심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해주, 문수백. (2012). 학령기 아동의 자기조절능력과 관련변인들 간의 관계 구조분석. 『兒童學會誌』, 33(1), 23-40.
- 하홍길. (2019). “잡크래프팅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 기본심리욕구 및 개인-환경적합의 지각을 중심으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 개발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나영, 김영조. (2011).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조직시민행동의 관계에 대한 성취욕구의 조절효과 검증 : 부산지역 특급호텔 종사자를 중심으로. 『인사조직연구』, 19(1), 185-226.
- 한봉주. (2010). “조직문화, 리더십,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산업대학교 IT정책전문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예정, 이종호. (2013). 대학생들의 가치관에 따른 전공만족도와 진로성숙도에 관한 연구. 『한국조리학회지』, 19(2), 76-92.
- 한주희, 고수일. (2002). 자율성, 과정피드백 및 결과피드백과 동기요인이 직무관련노력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력에 대한 연구. 『조직과 인사관리 연구』, 26(3), 251-272.
- 허정경. (2004). “학령기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척도 개발과 관련 변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기철. (2009). 자기주도 학습력 수준에 따른 문제중심학습의 효과. 『사고개발』, 5(2), 25-48.
- 홍승빈. (2012). “청소년의 자율성 및 관계성 만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 영향과 청소년의 개인주의-집합주의 가치관에 따른 차이”.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동필. (2014). “관광동기, 경험적 가치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 조절변수로서 관여도의 역할을 중심으로”. 우송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복주, 이계천. (2012). 재래시장의 서비스품질이 서비스가치, 고객만족,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서비스경영학회지』, 13(3), 27-59.
- 황혜원, 김봉환. (2013). 자기결정성 이론에 근거한 일에 대한 상황적 동기 (SIMS) 척도의 타당화. 『상담학연구』, 14(5), 2891-2906.

2. 국외문헌

- Allen, K. R., & Bradley. (2015). Career Counseling with Juvenile Offenders: Effects on Self- Efficacy and Career Maturity. *Journal of Addictions & Offender Counseling*, 36(1), 28- 42.
- Anand K. and Rakesh Niraj (2011). Examining mediating role of attitudinal loyalty and nonlinear effects in satisfaction-behavioral intentions relationship. *Journal of Services Marketing*, 25 (3), 165-75.
- A Van den Broeck, DL Ferris, CH Chang, CC Rosen. (2016). A review of self-determination theory’s basic psychological needs at work. *Journal of Management*, 42(5), 1195-1229.
- Baard, P. B., Deci, E. L., & Ryan, R. M. (2004). Intrinsic need satisfaction: A motivational basis of performance and well-being in two work setting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4, 2045-2068.
- Bearden, W.O., and J.E. Teel. (1983). Selected Determinants of Consumer

- Satisfaction and Complaint Report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0(1), 21-28.
- Bhattacharjee, A. (2001). Understanding Information Systems Continuance: An Expectation-Confirmation Model. *MIS Quarterly*, 25, 351-370.
- Blos, P. (1979). *The adolescent passage*.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Bowlby J. (1979). *The making and breaking of affectional bonds*. London, Tavistock.
- Cassidy, J. (2001). Truth, Lies, and Intimacy: An Attachment Perspective.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3, 121-155.
- Carver, C. S., & Scheier, M. F. (2013). Goals and emotion. In M. D. Robinson, E. R. Watkins & E. Harmon-Jones (Eds.), *Guilford handbook of cognition and emotion* (pp. 176-194). New York, NY: Guilford Press.
- Carver, C. S., & Scheier, M. F. (1998). *On the self-regulation of behavior*.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rites, J. O. (1978). *Administration miduse manual for the career maturity inventory* (2nd ed.). Monterey, CA: CTB/McGraw-Hill.
- Deci, E. L., Connell, J. P., & Ryan, R. M. (1989). Self-determination in a work organiza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4, 580-590.
- Deci, E. L., & Ryan, R. M. (2014). Autonomy and need satisfaction in close relationships: Relationships motivation theory. In N. Weinstein (Ed.), *Human motiva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pp. 53- 73). Dordrecht, Netherlands: Springer.
- Deci, E. L., & Ryan, R. M. (2002). Self-determination research: Reflections and future directions. In E. L. Deci & R. M. Ryan (Eds.),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431-441. Rochester, NY: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 Deci, B. L., & Ryan, R. 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 227-268.
- Deci, B. L., & Ryan, R. M.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Plenum.
- Deci, E. L., Ryan, R. M., Gagné, M., Leone, D. R., Usunov, J., & Kornazheva, B. P. (2001). Need satisfaction, motivation, and well-being in the work organizations of a former Eastern bloc country: A cross-cultural study of self-determin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8), 930-942.
- Deci, E. L., & Ryan, R. M. (2002). Self-determination research: Reflections and future directions. In E. L. Deci & R. M. Ryan (Eds.),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pp. 431-441). Rochester, NY: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 Dysinger, W. S. (1950). Maturation and vocational guidance. *Occupations*, 29, 198-201.
- Eisenberg, N., Smith, C., & Spinrad, T. L. (2013). Effortful control: Relations with emotion regulation, adjustment and socialization in childhood. In *Handbook of Self Regulation, Second Edition: Research, Theory, and Applications* (592). Guilford Press.
- Engel, J.F., Blackwell, R. D. and Miniard, P.W. (1995). *Consumer Behavior, 8th Edition*, The Dryden Press Har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Forth Worth.
- Erikson, E. (1968). *Youth: Identity and crisis*. New York: W. W. Norton.
- Stebner, F., Schuster, C., Dicke, T., Karlen, Y., Wirth, J., & Leutner, D. (2018, September). The role of individual differences on near and far transfer in self-regulated learning. Paper presented at the 11th International Cognitive Load Theory Conference, Beijing, China.

- Finkel, E. J., & Fitzsimons, G. M. (2013). *When Helping Hurts*. The New York times.
- Fishbein, M., & Ajzen, I.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 Addison Wesley.
- Fornell, C. (1992). A 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Barometer: The Swedish Experience. *Journal of Marketing*, 56, 6–21.
- Gagné, M., & Deci, E. L. (2005).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work motivation.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6(4), 331–362.
- Gilmore, J. H., & Pine, B. J. (2000). *Markets of one: Creating customer–unique value through mass customization*. Bost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 Granic, I., & Lamey, A. V. (2002). Combining dynamic systems and multivariate analyses to compare the mother–child interactions of externalizing subtype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0(3), 265–283.
- Greguras, G. J., & Diefendorff, J. M. (2009). Different fits satisfy different needs: Linking person–environment fit to employee commitment and performance using self–determination theor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4, 465–77.
- Greguras, G. J., & Diefendorff, J. M. (2010). Why does proactive personality predict employee life satisfaction and work behaviors? A field investigation of the mediating role of the self–concordance model. *Personnel Psychology*, 63(3), 539–560.
- Grolnick, W. S., Ryan, R. M., & Deci, E. L. (1991). Inner resources for school achievement: Motivational mediators of children's perceptions of their parent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3(4), 508–517.
- Grolnick, W. S., & Ryan, R. M. (1989). Parent styles associated with

- children's self-regulation and competence in school.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1(2), 143–154.
- Guerin, R. J., Toland, M. D., Okun, A. H., Rojas-Guyler, L., & Bernard, A. L. (2018). Using a modified theory of planned behavior to examine adolescents' workplace safety and health knowledge, perceptions, and behavioral intention: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7(8), 1595–1610.
- Harlow, H. F. (1958). The nature of love. *American Psychologist*, 13(12), 673–685.
- Hackman, J. R., & Oldham, G. R. (1980). *Work redesign*. Reading, MA: Addison Wesley.
- Hoyt, K. B. (1977). A primer for career education.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Järvelä, S., & Järvenoja, H. (2011). Socially constructed self-regulated learning and motivation regulation in collaborative learning groups. *Teachers College Record*, 113(2), 350–374.
- Johnston, M. M., & Finney, S. J. (2010). Measuring basic needs satisfaction: Evaluating previous research and conducting new psychometric evaluations of the basic needs satisfaction in general scale.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35(4), 280–296.
- Kenny, M. E., & Donaldson, G. A. (1991). Contributions of parental attachment and family structure to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functioning of first-yea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4), 479–486.
- Kovjanic, S., S. C. Schuh, K. Jonas, N. Van Quaquebeke, and R. Van Dick. (2012). 'How do transformational leaders foster positive employee outcomes? A self-determination-based analysis of employees' needs as mediating links', *Journal of Organizational*

- Behaviour*, 33(8), pp. 1031–1052.
- Liden, R. C., Wayne, S. J., & Sparrowe, R. T. (2000). An examination of the mediating role of psychological empowerment on the relations between the job,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work outcom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5(3), 407–416.
- Lian, H., Ferris, D. L., Morrison, R., & Brown, D. J. (2014). Blame it on the supervisor or the subordinate? Reciprocal relations between abusive supervision and organizational devian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9(4), 651–664.
- M. S. Ismail, S. S. Abdullah, M. Z. Mohamad, W. M. K. F. W. Khairuldin. (2018). Student's career maturity: Implications on career counselling. *International Journal of Academic Research in Business and Social Sciences*, 8(4), 887–897.
- Miller, D.C. and Byrnes, J.P. (2001) Adolescent's decision making in social situation: A self-regulation perspective.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2, 237–256.
- Morgeson, F.P., & Humphrey, E.E. (2008). Job and team design. Toward a more integrative conceptualization of work design. In J. Martocchio (Ed.), *Research in personnel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 27, 39–92.
- Muraven, M., & Baumeister, R. F. (2000). Self-regulation and depletion of limited resources: Does self-control resemble a muscle? *Psychological Bulletin*, 126(2), 247–259.
- Pintrich, P. R., & de Groot, E. V. (1990). Motivational and self-regulated learning components of classroom academic performa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1), 33–40.
- Reeve, J. (2015). *Understanding motivation and emotion* (6th ed.). Hoboken, NJ : Wiley.
- Reeve, J. (2015). *Understanding motivation and emotion* (6th ed.).

- Hoboken, NJ : Wiley.
- Reichheld, F.F. and Schefter, P. (2000) E-Loyalty: Your Secret Weapon on the Web. *Harvard Business Review*, 78, 105–113.
- Riadh L.(2009). Service quality, emotional satisfaction, and behavioural intentions: A study in the hotel industry. *Journal of Service Theory and Practice*, 19(3), 308–331.
- Rosen, C. C., Ferris, D. L., Brown, D. J., Chen, Y., & Yan, M. (2014). Perceptions of organizational politics: A need satisfaction paradigm. *Organization Science*, 25(4), 1026–1055.
- Rothbart, M. K., & Bates, J. E. (2006). Temperament. In N. Eisenberg, W. Damon, & R. M. Lerner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99–166). Hoboken, NJ, US: John Wiley & Sons Inc.
- Ryan, R. M. (1995). Psychological needs and the facilitation of integrative processes. *Journal of Personality*, 63, 397-427.
- Ryan, R. M., & Connell, J. P. (1989). Perceived locus of causality and internalization: Examining reasons for acting in two domai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5), 749–761.
- Ryan R.M., Deci E.L. (2017) Self-Determination theory. Basic Psychological Needs in Motivation, Development, and Wellness. New York, NY: Guilford Press.
- Ryu, K., Lee, H. K., & Woo, G. (2012). The Influence of the Quality of the Physical Environment, Food, and Service on Restaurant Image, Customer Perceived Value, Customer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mporary Hospitality Management*, 24(2), 200–223.
- Sahu, Thakur & Agrawal. (2017). Role of emotional intelligence in career maturity of adolescence. *Indian Journal of Health and Wellbeing*, 8(1), 92–94.

- Schiffman, L. G. & Kanuk, L. L. 2007, Consumer Behavior, 9th edn, New Jersey, Prentice Hall.
- Standage, M., Duda, J. L., & Ntoumanis, N. (2003). A model of contextual motivation in physical education: Using constructs from self-determination and achievement goal theories to predict physical activity intention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5(1), 97–110.
- Super, D. E. (1957). The psychology of careers; an introduction to vocational development. Oxford, England: Harper & Bros.
- Super, D. E., Super, C., & Savickas, M. L. (1996). A life-span, lifespan approach to careers. In D. Brown, L. Brooks, & Associates, Career choices and development (3rd ed., pp. 121-178). San Francisco: Jossey-Bass.
- Thong, J.Y.L., Hong, S.J. and Tam, K.Y., (2006). The effects of post-adoption beliefs on the expectation–confirmation model for information technology continuanc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Computer Studies*, 64(9), 799–810.
- Van den Broeck, A., Vansteenkiste, M., De Witte, H., & Lens, W. (2008). Explain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job characteristics, burnout and engagement: The role of basic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Work & Stress*, 22, 277-294.
- Vansteenkiste, M., & Ryan, R. M. (2013). On psychological growth and vulnerability: Basic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and need frustration as a unifying principle. *Journal of Psychotherapy Integration*, 23(3), 263–280.
- Westbrook, B. W. (1985). What research says about career maturity: A response to Cites, Wallbrown, & Blha(1985).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6, 239–250.
- Yoon, C., Jeong, C. & Rolland, E. (2015). Understanding individual

adoption of mobile instant messaging: a multiple perspectives approach. *Information Technology and Management*, 16(2), 139–151.

Zeithaml, V.A. (2000) Service Quality, Profitability, and the Economic Worth of Customers: What We Know and What We Need to Learn.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28, 67–85.

Zeithaml, Valarie A. (1981). How Consumer Evaluation Processes Differ between Goods and Services. *Marketing of Services*, J. Donnelly and W. George, eds., Chicago: American Marketing, 186–190.

Zimmerman, B. J. (2008). Investigating self–regulation and motivation: Historical background, methodological developments, and future prospect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45(1), 166–183.

Zimmerman, B. J. (1986). Becoming a self–regulated learner: Which are the key subprocesse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11(4), 307–313.

부 록

설 문 지

	-			
--	---	--	--	--

직업전문학교 훈련생의 기본심리욕구가 진로성숙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조절을 조절효과로-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어 저의 본 설문에 참여하여 주신 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는 “**직업전문학교 조리교육생의 기본심리욕구가 진로성숙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자기조절을 조절효과로-**”에 대하여 연구하여 한성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논문 작성을 위한 설문 내용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설문결과는 조리교육훈련의 귀중한 자료가 되므로 적극적으로 성실히 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의 응답내용은 학술연구목적이외에 다른 어떤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월 일

한성대학교 경영대학원
호텔관광외식경영학과
지도교수 : 허 진
연구자 : 박 성 옥
이 메 일 : sungok917@naver.com

A. 다음의 항목은 기본심리욕구(자율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A-1. 기본심리욕구(자율성) 항목에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해당 숫자에 (V) 표 하여 주십시오.

측 정 항 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타인들로부터 통제를 받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어떠한 경우든 스스로 결정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어떤 상황이던 강요받아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타인의 생각보다 내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A-2. 기본심리욕구(유능성) 항목에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해당 숫자에 (V) 표 하여 주십시오.

측 정 항 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내 자신이 매우 효율적이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다른 사람보다 잘 하는 것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새로운 것에 대한 이해능력이 뛰어나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게 주어진 일을 능숙하게 잘 해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A-3. 기본심리욕구(관계성) 항목에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해당 숫자에 (V) 표 하여 주십시오.

측 정 항 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다른 사람들과 공감대 형성을 잘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타인에 대해 긍정적이고, 친밀감을 갖는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평소 주변사람과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친구들의 고민 상담을 잘 들어준다.	①	②	③	④	⑤

B. 다음은 “진로성숙”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께서 각 항목을 읽어보시고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숫자에 (V)표 하여 주십시오.

측 정 항 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나의 진로에 대하여 확실하게 결정을 한 상태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원하는 직업을 위해서는 미리 계획을 세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진로계획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적극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직업의 성공사례를 관심 있게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소신 것 직업을 선택 한다.	①	②	③	④	⑤

C. 다음은 “행동의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께서 각 항목을 읽어보시고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숫자에 (V)표 하여 주십시오.

측 정 항 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수강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주변인에게 수강 하도록 적극 추천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수강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주변에 자랑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현재 교육프로그램 이외의 다른 교육프로그램을 계속하여 재수강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수강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 이외 교육프로그램도 적극 주변에 추천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향후 현재 교육기관을 선택하여 재등록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D. 다음은 “자기조절”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께서 각 항목을 읽어보시고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숫자에 (V)표 하여 주십시오.

	측 정 항 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지금의 교육은 나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배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노력한 만큼의 좋은 결과를 얻는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학습능력이 매우 우수하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아무리 어려운 과제라도 노력하면 해 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지금 배우는 내용이 흥미롭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많은 노력이 필요해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학습내용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지금 배우는 내용이 살아가는데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E.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질문으로 귀하께서 각 항목을 읽어보시고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숫자에 (V)표 하여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자(男子) ② 여자(女子)

(2) 귀하의 연령은?

- ① 20~29세 ② 30~39세 ③ 40~49세 ④ 50세 이상

(3) 귀하의 가구당 월 평균 소득수준은?

- ① 200만원미만 ② 200~300만원 미만
③ 300~400만원 미만 ④ 400~500만원 미만 ⑥ 500만원이상

(4) 귀하의 결혼여부는?

- ① 기혼(既婚) ② 미혼(未婚) ③ 기타

(5) 귀하께서 교육기관 선택 시 정보원천은?

- ① 고용센터 ② 인터넷 ③ 지인추천 ④ 기타

(6) 귀하께서 교육을 받는 목적은?

- ① 자격증 취득 ② 취업 ③ 자기개발 ④ 기타

(7) 귀하의 학력은?

- ① 중.고등학교재학/졸업 ② 2년제 전문대학재학/졸업
③ 4년제 대학재학/졸업 ④ 대학원이상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ABSTRACT

The Effect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of Career
College Students on Career Maturity and
Behavioral Intention
–By the regulating effect of self regulation–

Park, Sung–Ok

Major in Food Service Management

Dept. of Hotel,Tourism and Restaurant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Han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factors of career maturity and behavioral intention related to basic psychological needs of culinary trainees in vocational training institutions by establishing a relationship model. In this process, we examine how the basic psychological needs of culinary trainees are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ed by career maturity and behavioral intention in terms of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ionship.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whether this regulatory role could be achieved. First, the concept is established based on existing prior literature on vocational education institutions, basic psychological needs, career maturity, behavioral intention, and self-regulation. Second, this study embodies the measurement factors for autonomy, competence, relationship, career maturity, behavioral intention, and self-regulation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centered on prior studies, and develops questionnaires. Third, through the empirical analysis, the basic psychological needs of cooked

trainees of vocational training institutes are examined, and their influence on career maturity and behavioral intention. Fourth, the relationship between basic psychological desire and career maturity according to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regulation is examined. Finally, the results of this study present the data through the evidence presented to the management manager for the direction of effective and effective career education for culinary trainees in the future. The questionnaire for the empirical analysis limited the cooking trainees of vocational training institutions in Seoul and Gyeonggi-do to the population. In addition, surveys for data collection were conducted from October 15 to October 31, 2019. Among 320 surveys centered on trainees from vocational training institutions in Seoul and Gyeonggi-do, the number of surveys was 305, and the recovery rate was 95.3%. 281 parts (87.8%)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except 24 parts of the questionnaire respon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strategic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satisfaction of cooking students, the employment rate through career maturity, and the intention to retake classes. First, the vocational school employs dedicated employees related to employment after the completion of the course, and the basic psychological desires of cooked trainees,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ionship, will affect career maturity when the students' tendency is varied. The research results were different from the researcher's hypothesis and resulted in the study that only competence and relationship affect career maturity. In addition, it differs from the researcher's hypothesis that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ionship will affect behavioral intention. This is a result of the training being conducted for trainees who have different past histories and the cooking education, resulting in a strong tendency to depend on instructors or institutions and lack of confidence due to lack of experience. Institutions, instructors, and staff should make efforts to instill culinary trainees with basic knowledge for developing skills that can be solved on their own without relying on them by providing systematic education of culinary education. In addition, efforts should be made to improve understanding and give confidence through various cooking education experiences. Second, the higher the career maturity, the higher the behavioral intention. The higher the belief that the vocational college decides the career path and leads to employment, the higher the degree of recommendation is to retake or recommend other programs. It suggests that institutions should make efforts to develop curricula that hope and can help them find employment. Third, a multi-s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regulation and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career maturity.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no moderating effect on autonomy and competence among basic psychological needs perceived by culinary trainees of vocational colleges. Derivation and relevance only play a moderating role, but show a negative impact. This means that cooking trainees in vocational schools, which are trained with government support for cooking education, will think a lot about their fears, aptitudes, and future careers as they learn their experiences and other new functions. It is a prerequisite for cooking education that the part that feels and thinks important to me, such as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my growth and making myself interesting and hard, shows a negative influence on the formation of sympathy, intimacy with others, and the exchange of help. Due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learning, it may be said that the situation that is very easy for some students can be a very difficult part for other students. Therefore, you will need to be convinced of the direction that institutions and instructors will present, and you will be able to meet the opportunities such as best practices of graduates, meet your confidence in the relationship of your educated motives, and retake, recommend, and act positively with confidence. will be. Therefore, managers of vocational colleges should make efforts to provide cooking trainees with various seminars and on-the-job opportunities.

【Key Words】 Culinary Institute, Basic Psychological Needs, Career Maturity, Behavioral Intention, Self-Regulation